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7호 HYUNBULNEWS.COM 2026년 10월 14일(음력 9월 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결산

집행부 출범 발맞춰 '변화의 제도화' 성과

전반기, 종단 현안에 대응
문화재관람료 감면 종법화
3원 통합 따른 후속 입법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전반기 2년은 제37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종단 운영의 틀을 정비한 시기였다. 사회 변화에 따른 종법 개정부터 총무원 조직개편, 교구본사 기능 강화까지 새 집행부의 변화에 중앙종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2022년 10월 13일 선출을 마친 제18대 중앙종회는 24개 교구 가운데 직할·마곡사·불국사·송광사·선운사 등 5개 교구에서만 경선이 치러졌다. 초선 의원은 29명에 달했다. 11월 9일 임기를 시작해 주요 제도와 조직을 손질했다.

조직개편 법적 기반 마련

전반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제37대 집행부 출범에 맞춰 종단 조직개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2023년 11월 열린 제229회 정기회에서 중앙종회는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개별 종법 손질을 넘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종단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였다.

논의는 다음 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2024년 3월 제230회 임시회에서는 3원 통합 등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9월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로 총무원법을 개정하고, 교구본사 문화국 신설을 위한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는 제37대 집행부가 추진한 종단 운영체계 변화에 중앙종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한 과정이기도 했다. 특히 조직개편이 단순한 조직의 증감에 그치지 않고 총무원과 교구본사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구본사 문화국 신설 역시 지역 단위의 문화·포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로 평가된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종법 반영

2023년 5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이 시행되면서 사찰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중앙종회는 같은 해 9월 제228회 임시회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에 따른 종법 개정을 단행했다.

특히 이는 사회적 변화에 종단이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종법 체계에 담아낼 것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제37대 집행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도 집행부와 종회가 주요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한 사례로 꼽힌다.

'미래 대비' 논의 본격화

전반기 중앙종회의 또 다른 특징은 종단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승려복지법 개정은 승가복지를 종단 차원의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거법도 개정해 보궐선거를 궐위 발생 60일 이내 실시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선거 공백을 줄였다. 중앙종회의원 겸직 제한 완화를 위한 종헌 개정안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결국 전반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구본사 주지 임기 3임 제안 역시 이월됐다. 원로회의 의장 임기 단축을 위한 종헌 개정안은 부결됐다.

제도 정비 이어 후반기 변화 '기대'

전반기는 제37대 집행부 출범에 맞춘 제도 정비와 조직개편에 무게가 실린 시기였다. 특히 종단미래대비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출발해 종헌 개정, 총무원법 개정 등으로 이어진 조직개편 과정은 전반기 중앙종회의 흐름을 보여준다.

다만 중앙종회가 집행부의 정책을 제도화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전반기에 마련된 변화의 기반이 후반기에는 종헌·종법을 둘러싼 더욱 본격적인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도적 틀이 실제 종단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이후 중앙종회의 몫으로 남았다. 5면에 계속



천년 도량에 핀 천진불 웃음꽃

나주 다보사는 10월 3일 역대 선사들의 수행정신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불교문화와 산사의 가을을 선물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불기 2570년 다보사 다례문화제 및 어린이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다보사 주지 만민 스님과 함께 활짝 웃고 있다.
글 ·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명우 본지 대표, 불교언론인상 수상

조계종 제34회 불교언론문화상
신중일 '성보유랑' 최우수상도
대상엔 '이욱정PD 부처님 밥상'
시상식, 11월 18일 기념관서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신중일 현대불교신문 기자

현대불교신문이 조계종이 주최한 제34회 불교언론문화상에서 불교언론인상과 언론보도부문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는 불교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불교언론인상에, 본지 신중일 기자의 기획보도 '성보유랑'은 언론보도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7일 제34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과 수상자를 발표했다. 불교언론문화상은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불교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한 방송·언론보도·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우수 작품과 불교언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언론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불교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명우 대표이사는 1994년 현대불교신문 창간 당시 공채 1기 기자로 입사해 불교언론과 불교계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다. 2024년 11월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는 경영 안정화와 취재·편집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디지털미디어국을 신설하고 유튜브·SNS를 강화하는 한편 생성형 AI 상담봇 개발, AI 영상·그림 공모전 개최 등 디지털·AI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불교미디어의 방향을 제시했다. 불교의 가치와 문화를 다양한 세대와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등 불교언론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언론보도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본지 신중일 기자의 '성보유랑'은 일제의 고적조사와 식민지 전시정책을 거치며 국내외로 흩어진 불교문화유산의 유랑 과정을 짚고, 성보의 환지본처 방안을 모색한 기획연재다.

석굴암 경성 이운 계획과 조선물산공진회, 일본 오쿠라호텔에 남아 있는 이천오층석탑, 112년의 유랑 끝에 귀향한 지광국사탑,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과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등을 사례로 문헌과 당시 사진, 박물관 기록, 연구 성과 등을 살펴 성보가 흩어지게 된 과정과 그 배경을 짚었다.

무엇보다 '성보유랑'은 반출과 수난의 역사를 고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성보를 제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담아냈다. 시민이 주도한 국외 환수운동, 사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환지본처 활동, 발굴조사와 보존시설 건립, 국가유산 지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환수를 현실화하는 과정을 현장 취재해 불교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대상에는 채널A '이욱정 PD의 부처님 밥상'이 선정됐다. 사찰음식의 역사와 철학을 인도·일본·대만·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조명했으며, 사찰음식을 음식문화를 넘어 자비와 생명존중, 공존의 가치를 담은 수행문화로 풀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송부문 최우수상은 BBS '종교를 품은 잔(盞)-커피, 차 그리고 와인', 디지털콘텐츠부문 최우수상은 나투다 픽쳐스 '스님, 잘사는 방법은 뭘까요?'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방송부문 KBS '셀럽병사의 비밀' 법정 스님 편, 언론보도부문 BTN 기획보도 'AI 시대, 불교의 길', 디지털콘텐츠부문 '음악으로 듣는 불교 경전' 시리즈-금강경·반야심경·다라니 108독이 각각 수상했다. 불교문화상에는 한글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불교의 역사적 역할을 조명한 안동MBC의 '한글불경 탄생의 비밀'과 AI 기술을 활용해 고타마 싯다르타의 발심과 출가 과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EBS의 'AI드라마-부활수업 : 고타마 싯다르타 편'이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11월 18일 오후 4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결산 5면
대행 선사 100주년 기념 사업 본격화 13면

창립 40주년 ANNIVERSARY
당신의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어린이청소년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증 명	혜총
고 문	정여 지현
명예총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부총재	덕진 성행 신공 심산 운성 정무 지광
추진위원장	미수
추진부위원장	능후
추진위원	금륜 도제 도진 명원 연성 지우 탄경 혜성 혜타 설영일
사무총장	현수 효산
지역후원관리	김용숙 박선영 박영우 신현임 조현주 한경희
사업부 최미선	지원부 강민지 모금부 최윤주

어린이 청소년센터 건립
후원자 모집

농협 301-0278-6185-41 예금주 : 사단법인 동련

사단법인 동련(童蓮)은 1986년에 설립되어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하여 불국토를 건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자존성과 자주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지도자의 조직 확대 및 어린이 청소년 교화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동련은 꿈을 키웁니다.
동련은 자비 토양을 키웁니다.
동련은 우리의 내일을 키웁니다.

이 땅의 불자들이 이 세상이 다하도록 빛날
위없는 복밭을 일구고 가꾸는 일에 크게 눈을 돌려
기꺼이 동참하는 날들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사단법인 동련은
이 땅에 우리의 내일을 키웁니다
-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문화, 인성, 마음행복 프로그램
- 학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 지도자를 위한 전문 교육
- 어린이·청소년 활동 지원 및 상담

사단법인 동련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31 7층 Tel (051) 864-4569 Fax (051) 864-4665 www.dongryun.net

“진우 스님과 미래불교 등불 밝힐 것”

불교리더스포럼, 10월 7일 축하만찬
진우 스님 “국민 마음 평안에 진력”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에 공로패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불교리더스포럼은 10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축하만찬’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재가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인 불교리더스포럼(상임대표 이기흥)이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종단 발전과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외호대중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불교리더스포럼은 10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축하만찬’을 개최했다.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37대 총무원장 임기를 돌아보며 “지난 4년간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앞으로의 4년이 더 중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새 임기의 핵심 과제로는 ‘마음안보’를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물질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풍요로워졌지만,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명상은 시대에 맞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며 “지난 임기부터 힘써온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어릴 때부터 선명상을 통해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괴로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진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임기 동안 종단 발전과 불교계 성장을 이끌어온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상임대표는 “원장 스님의 깊은 원력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쉼 없는 정진 덕분에 불교리더스포럼을 비롯한 불교 단체들이 양적·질적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선명상 대중화의 성과를 언급하며 “선명상은 불교가 국민들의 삶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면서 “불교리더스포럼 회원들 또한 선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건강한 사회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교리더스포럼 회원들도 우리 사회의 불자 리더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외호대중으로서 맡은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원주 상임부대표도 축사에서 “지난 임기 동안 종단 안정과 발전 그리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제38대 집행부 슬로건 ‘세상의 평화를 함께 여는 미래불교’의 뜻처럼 불교 지혜와 자비가 우리 사회를 넘어 세상 곳곳에 더욱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건작 청와대불자회장은 “총무원장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국민 마음 치유에 앞장서 오셨다”며 “마음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사부대중을 대표해 이연화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수석부회장이 진우 스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제38대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또 진우 스님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맡은 이상현 불교리더스포럼 문화예술분과 부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반달스님’ 판매로 사찰림 연구기금 조성

국립공원공단, 1850만원 전달
사찰림 생태 · 문화 가치 보존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의 대표 굿즈인 ‘반달스님’과 ‘반달동자’ 판매 수익금이 사찰림 연구기금으로 조성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10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185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국립공원공단 캐릭터 ‘반달이’에 불교 가사와 동자승 복장을 더한 ‘반달스님’과 ‘반달동자’ 굿즈 판매를 통해 마련됐다. 조계종과 국립공원공단, 골든베어상사의 협업으로 제작된 해당 굿즈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만8500개가 판매됐다.

기금은 향후 국립공원 내 사찰림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연구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사찰림 연구사업으로 활용된다.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돼 사찰림 등 사찰의 가치를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대영 이사장은 “최대한 많은 사찰이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이행으로 잇기 위해 국회 논의에도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조계종 총무부장 등 부·실장 유임

진우 스님, 10월 7일 임명
일자는 9월 28일 소급 적용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총무원장 취임에 따른 후속 인사로 제37대 집행부에서 임명된 일부 부·실장 스님의 유임을 결정했다.

조계종은 “10월 7일 총무부장 정문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 등 6명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임명일자는 제38대 집행부가 출범한 9월 28일로 소급 적용됐다.

호법부장 도심 스님도 유임됐다. 다만 도심 스님은 이미 중앙종회 인준을 받은 바 있어, 별도의 신규 임명 절차 없이 기존 직을 이어간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19대 종회 선거 15곳 경선

조계종 중앙선관위, 명부 확정
후보자 사퇴로 9곳 무투표 당선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15곳에서 경선으로 치러진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는 10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39차 회의를 열고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자격 심사, 선거인 명부 확정, 위원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심담 스님의 입후보 자격을 재심사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심담 스님은 앞서 중앙선관위 심사를 거쳐 입후보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후 총무원 측에서 미등록 사설사암의 실소유자로 확인됐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호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심담 스님의 입후보 자격을 다시 심사해 ‘자격 없음’으로 재결정했다.

후보자 가운데 사퇴서를 제출한 이들도 있다. 10월 8일 기준 직할교구 관태·주경 스님, 월정사 효림 스님, 법주사 현우 스님, 수덕사 정경 스님, 고운사 도륜 스님, 관음사 자경·향림·월공 스님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개 교구 가운데 15개 교구에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선출 정원과 같은 수의 후보가 등록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교구는 신흥사, 월정사, 직지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봉선사 9곳이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인 명부도 확정했다. 자격 이상자와 투표구 미신청자, 타교구 선거권 행사자 등을 제외한 최종 선거인 수는 직할교구 495명, 용주사 187명, 법주사 225명, 마곡사 129명, 수덕사 126명, 동화사 243명, 은해사 99명, 불국사 114명, 해인사 535명, 쌍계사 84명, 통도사 436명, 고운사 100명, 금산사 98명, 백양사 172명, 관음사 36명으로 결정됐다.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전국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당선증은 10월 16일 전 교구에 일괄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선운사 주지에 경우 스님 임명

진우 스님, 10월 7일 임명장 수여
“교구 본·말사 안정적 운영 최선”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에 경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경우 스님에게 선운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여러 소임을 경험하고 다시 교구장으로 복귀하게 된 만큼 종단과 교구 발전에 더 많이 노력해 달라”며 “가람 수호와 대중 화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우 스님은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24교구본·말사가 화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우 스님은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해 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했다. 김내영 기자

일해당 덕민 대강백

선문염송 禪 특강

禪門拈頌



2026. 11.1 (일) ~ 11.3 (화) 2박 3일

범어사 선문화관 강당

대상 승가 (비구, 비구니)



11월 1일 (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2시 - 4시

11월 2일 (월)
오전 10시 - 12시
오후 2시 - 4시

11월 3일 (화)
오후 2시 - 4시

※11월 3일은 오전 수업이 없습니다.

문의 051-508-0102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051-508-3122 범어사 종무소

교재비 5만원
(부산은행 101-2091-9658-01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사전신청 선착순 300명
※신청접수시. 교재비 입금 후, 문의처로 접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여래종 60주년…“미래 100년 보살행”

10월 3일 옥천 대약사사서 법회
인왕 대승정 공덕비 제막식 열려
명안 스님 “유지 이어 전법 진력”
‘여래본문 보살행 7대 서원’ 천명

옥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여래종은 10월 3일 옥천 총본산 대약사사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 6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이 창종 60주년을 맞아 전법 원력을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자비와 보살행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여래종은 10월 3일 옥천 총본산 대약사사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 6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종단의 60년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 전법과 수행의 방향을 정립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여래종 종단 스님들뿐만 아니라,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 원불교 김대선 법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법회에 앞서 창종주 인왕 대승정 공덕비와 창종 60주년 중흥대비 제막식이 엄수됐다. 종단 원로·중진 스님과 내외귀빈, 신도들은 종단의 기틀을 닦은 인왕 대승정의 뜻을 기리며 중흥을 발원했다.

기념법회는 호법원장 도혜 스님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연화합창단의 집회가, 황금목탁·지장회 육법공양팀의 육법공양, 삼귀의례, 찬불가, 법혜 스님이 집전한 독경 ‘자아게’, 교육원장 무극 스님의 축원문 봉독으로 이어졌다. 원로원장 석산 스님은 ‘인왕송’을 통해 종단의 창종 정신과 수행 원력을 되새겼다.

이어 여래종 원로 법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종교가 부르짖는 단 하나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에 있다”며 “모자라지도 않은데 모자랄까 봐 전전긍긍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플까 봐 전전긍긍하며 오지도 않은 일에 얽매여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속아 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성내지 말고, 늘 마음과 혀끝에 ‘감사합니다’라는 다섯 글자의 화두를 품고 오유지족(吾唯知足)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법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진리”라며 “창종 60년이라는 세월의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종단을 개산하신 인왕 큰스님의 유지를 오롯이 받들어 부처님 법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부대중이 하나 된 원력으로 지혜를 모아 전도·전법·전승에 정진하는 여래종단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지난 60년간 종단 발전과 사암 포교 현장에서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어 연화합창단의 찬불가 ‘묘법연화경, 보현행원’ 음성공양과 함께 문도회장 묘선 스님이 ‘100년 함께 하는 여래본문 보살행 7대 서원’을 낭독했다. 7대 서원에는 여래법의 진리를 믿고 일상에서 감사·은혜·보은을 실천하며 생명평등과 공생·공영·공존의 대자대비를 구현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아울러 ‘중생이 곧 보살이며 보살이 곧 여래’라는 믿음으로 전법과 전승에 힘쓰고, 화해·용서·참회로 수행자의 위의를 지켜가겠다는 원력이 표명됐다.

한국불교여래종은 이번 창종 6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일상 속 ‘여래행·보살행’ 실천을 확산하고, 종단의 창종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해 100년 대계를 열어갈 방침이다.

‘나는 절로’서 뉴진 스님과 ‘극락파티’

11월 7~8일, 한국문화연수원서
10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가 이번에는 뉴진 스님과 함께 청년들의 인연을 잇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진행되는 ‘나는 절로, 극락파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뉴진 스님’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불교문화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개그맨 윤성호 씨가 함께해 특별함을 더한다. 뉴진 스님은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선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극락파티’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기존 ‘나는 절로’가 진중한 만남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유쾌함을 더해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대일 로테이션 차담, 랜덤 데이트, ‘불멍’ 데이트 등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종교 관계없이 충청권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과 연관 있는 2030세대 미혼남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10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를 참조해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1분 자기소개 영상을 추가 접수한 뒤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02-6334-2217

이현희 기자

명진 스님, 조계종 최고 법계 ‘대종사’ 추서

“수행과 사회적 실천 뜻 기려”
10월 9일 49재서 법계증 봉정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22일 원적에 든 명진 스님〈사진〉에게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大宗師)를 추서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 스님)는 10월 6일 회의를 열고 명진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를 추서하기로 결정했다.

대종사는 오랜 수행과 종단 및 사회에 대한 공적과 지도력을 갖춘 스님에게 품수된다. 조계종은 오랜 기간 수행과 사회적 실천에 힘써온 명진 스님의 뜻을 기려 대종사 법계를 추서하기로 했다.

대종사 추서는 10월 9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 명진 스님의 49재 막재에서 이뤄졌다. 이날 법계증을 비롯해 대종사를 상징하는 25조 가사와 휘장이 봉정됐다. 진우 스님도 참석해 명진 스님의 수행과 삶을 기리는 추도사를 전했다.

임은호 기자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배우 이재용



불자 배우 이재용 씨가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재용 배우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11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 배우는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 짜장 공양 등 아름다운동행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며 대중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함께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자비 실천 활동에 대해 적극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기대했다.

이현희 기자

음악회와 강연으로 ‘마음의 쉼’

조계종 2026 불교문화대전
10월 14~16일 조계사서 열려



바쁜 일상 속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쉼’을 선사할 불교 문화의 장이 서울 조계사에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성원 스님)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2026 불교문화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불교의 가르침과 문화를 친근하게 접하며 일상 속 마음의 여유를 찾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마음의 쉼’을 주제로 ‘마음 쉼 토크’, 음악회, 강연, 불교도서전, 팝업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음 쉼 토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토크콘서트로, 14일과 15일 오전 11시 20분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14일은 BTN 불교TV ‘가피’ 진행자 광우 스님, 15일은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혜주 스님이 강연자로 나선다. 두 스님은 포스터 QR코드로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의 행복, 관계, 삶의 의미 등 고민에 불교적 지혜와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불교문화강연은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최원석 프로젝트렌트 대표가 ‘불교는 이 시대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주제로 불교 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과 소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설무대에서는 음악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정오의 음악회’가 펼쳐져 싱잉볼·핸드팬을 비롯해 국악, 재즈,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야외 책마당에서는 ‘불교도서전’이 상시 운영된다. 불교·인문·명상·마음 치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불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도반HC의 불교 굿즈샵 붓쯔 팝업전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끈다.

배희정 기자


사진으로 되짚는 한국불교 발자취 태고종중앙회가 10월 7~12일 서울 인사동 라메르갤러리에서 ‘2026 한국불교역사문화 사진전’을 개최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사진 60여 점이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임은호 기자

(재)한국불교여래종 창종60주년 기념법회 성료 및 감사인사



한국불교여래종 창종 60주년 기념법회에
귀한 걸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따뜻한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사부대중과 모든 인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60년의 원력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전하고 한국불교의 발전과 중생의 안락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한국불교여래종이 되겠습니다.

(재)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사부대중 일동

네팔 대홍수 현장 찾아 불교계 온정 전해

홍대선원, 누와코트 교량 복구 추진
더프라미스 긴급구호단 '맞춤 지원'
화정·경우 스님, 봉녕사·선우회
피해 복구 위한 기금 전달 잇따라

임은호 · 이현희 기자



더프라미스 긴급구호단은 9월 8일부터 20일까지 네팔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갔다. 사진은 9월 17일 다딩 지역 15가구에 식량키트를 전달한 모습.

한국 불교계가 대홍수로 고통받는 네팔 피해 현장을 찾아 교량 복구 추진 등 이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JustBe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최근 네팔에 입국해 피해가 심각한 누와코트 지역의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가장 시급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준한 스님에 따르면 현지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교량 붕괴로 인한 지역 고립이었다. 홍수로 여러 다리가 무너지면서 마을 간 이동이 쉽지 않아 식량과 구호물자를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대선원은 누와코트 지역 출렁다리 복구·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홍대선원은 대홍수 직후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했다. 약 600명이 모금에 동참했으며 이렇게 마련된 긴급구호 성금은 총 1억원에 이른다. 홍대선원은 성금을 피해지역 교량 복구·건설에 우선 사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슈탐 라미차네 지역구 국회의원 측은 최근 누와코트와 라수와 사이 트리슐리강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후보지를 복구 대상 교량으로 공식 제안한 상태다.

준한 스님은 "사람과 사람을 다시 잇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고, 구호물자가 오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이라며 "이번 구호 활동이 재난으로 단절된 사람과 지역을 다시 연결하는 자비행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도 9월 8일부터 20일까지 피해 현장에 긴급구호단을 파견하고 현지 NGO 'CFO Nepal'과 함께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갔다.

긴급구호단은 △피해 마을 100가구 '리빙키트' 지원(누와코트) △무너진 학교 교실 복구(다딩) △860가구 식량 지원(라수와) △사찰 대피소에서 돌아온 298가구 식량 지원(카트만두) △구호 사각지대에 놓인 15가구 식량 지원(다딩) △교량 붕괴로 등교하지 못한 200명 학생의 기숙사 복구(누와코트) 등을 통해 지원이 미처 닿지 못한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웠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네팔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모연에도 스님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원 화정 스님(평택 명법사 회주)은 10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와 봉녕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선우회(회장 설오 스님)도 총동문회를 주축으로 마련한 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도 10월 7일 주지 임명장 수여 직후 기금 3000만원을 기부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기금을 전달받은 진우 스님은 감사를 표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은 불교가 앞장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종단은 현지 상황을 주시하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기자칼럼

산문을 열다, 마음을 열다

전국의 고찰들이 산문을 활짝 열었다. 절이 처음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개산대재(開山大齋)'가 잇따라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찰의 개산대재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라졌다. 과거 스님과 신도 중심의 엄숙한 종교의식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 축제로 변모하고 있다.

통도사는 개산 1381주년을 맞아 천년 역사를 간직한 괘불을 특별 공개하고 화려한 야간 미디어아트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고즈넉한 산사가 환상적인 빛으로 물드는 밤,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 그 아름다움에 빠져든다. 개산 1232주년을 맞은 도심 속 봉은사도 정대불사를 비롯해 왕실의 산책 퍼레이드, 사찰음식 나눔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 한마당을 펼친다. 이 밖에도 가을을 맞아 산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는 사찰 문화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평창 월정사는 오대산문화축전을, 구례 화엄사는 화엄문화제를 개최한다.

개산은 한자 그대로 '산을 연다'는 뜻이다. 스님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깊은 산속에 터를 닦고 절을 세운 일을 일컫는다. 얼핏 세상을 등진 '입산(入山)'과 닮았지만, 수행의 목적은 세상과 담을 쌓는 데 있지 않다. 깨달음을 구하고 그 가르침을 세상에 돌려주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절을 세운다는 것은 수행자만의 은둔처를 마련하는 일이 아니었다. 고통받는 사람 누구나 찾아와 쉬고, 배우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문 없는 문(無門關)'을 활짝 열어젖히는 선언이다.

사찰이 정성껏 준비한 행사와 밥 한 끼, 차 한 잔은 볼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쉼 없이 달리던 사람들이 잠시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을 다독이는 '치유의 시간'이다. 다문화 가정을 초대하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나눔은 사찰과 지역사회의 거리를 좁히는 따뜻한 실천이기도 하다.

사찰 마당에 울려 퍼지는 흥겨운 음악과 따뜻한 불빛 속에는 '누구나 들어와 위로받고 쉬어 가라'는 천 년 전 스님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엄숙주의를 벗고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는 불교의 노력이 반갑다.

산을 열어 절을 세웠던 과거의 개산이 이제는 현대인의 마음을 여는 '새로운 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가을, 가족들과 가까운 산사를 찾아 활짝 열린 '문 없는 문'을 넘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외불교계 AI 활용 방향 점검

조계종, 10월 28일 세미나 개최

조계종 사회부는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해외불교계의 AI 활용'을 주제로 '2026년 해외불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발제 주제는 △미국: 디지털 멘탈케어 시장 내 명상 프로그램의 AI 기술 접목 현황(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 명상심리학과 교수) △일본: 교계 내 AI 로봇 도입 현황 및 종교적 영향 분석(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 △대만: 불광산의 사례로 보는 불교의 AI 발전과 응용(서울 불광산사 주지 혜호 스님)이다.

이현희 기자

JustBe 승가장학회…"출·재가 인재 양성"

10월 24일, 홍대선원서 출범식
1구좌 1만원부터 십시일반 가능

불교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고 출·재가 수행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수행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JustBe 승가장학회'가 출범한다.

JustBe 승가장학회(승가대표 준한 스님)는 10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홍대선원 5층 선불장에서 출범식을 거행한다.

'승가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JustBe 승가장학회는 출가를 결심한 이들의 첫걸음부터 수행자의 지속적인 공부와 교육,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불교 인재 양성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장학회 출범은 홍대선원이 지난 4년간 일궈온 수행 공동체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홍대선원은 2022년 개원 이후 세대와 국적을 넘어 수행자와 불자들이 함께 배우고 수행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12명의 발심 출가 스님이 탄생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 공간에서 수행하고 배우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온 경험은 수행 공동체를 넘어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불사로 이어졌다.

JustBe 승가장학회는 출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수행과 교육 과정, 미래 불교 인재 양성까지 출재가 수행자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장학 지원은 크게 글로벌 인재, 출가 첫걸음, 출가 승려, 청년 스태프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JustBe 승가장학회는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후원 방식도 마련했다.

정기후원은 월 1·2·3만원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첫걸음 펀드 30만원 10구좌, 자율후원 100·300·1000만원 이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할 수 있다. 창립기금 1000만원 후원도 가능하다. 010-8008-2423

후원 : 농협 301-0390-9845-31(대한불교조계종 홍대선원) 임은호 기자

불교활동가 후보 공모

10월 31일까지 접수

불교활동가지원기금(운영자 동출 스님)이 10월 31일까지 '제23회 불교활동가' 후보자를 공모한다.

불교활동가지원기금은 포교 현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홍포에 앞장서 온 활동가를 선정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교계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재가불자와 외국인 스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이력서와 활동 내역서, 개인 또는 단체 추천서를 이메일(sulpub@nate.com)로 제출하면 된다. 010-9004-2707 이현희 기자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에 배우 이광기

10월 27~30일 서울영화센터서
'이어짐' 주제로 국내외 53편 상영

제18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집행위원장 지웅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영화센터에서 개최된다. 홍보대사에는 이광기 배우〈사진〉가 위촉됐다.



이번 영화제에는 '이어짐'을 주제로 노년의 다양한 삶을 조명하고 세대 간 경험과 이야기를 영화로 나눈다. 국내외에서 총 530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25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다. 영화 '첫 여름'을 개막작으로 열리며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SISFF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도슨트 초이스, 기억 아카이빙, 특별초청, SISFFF 명예의전당, 한국장편초청, 고전장편초청 등 다채롭게 준비돼 영화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홍보대사 이광기 배우는 "노인을 바라보는 영화제를 넘어 '미래의 나'를 만나보는 영화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각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8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온라인 예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공식 홈페이지(sisff.seoulno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6220-8693 박지운 기자



'프춤번' 맞아 재한 캄보디아 주민과 화합의 장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10월 4일 여래마을에서 캄보디아 전통명절 '프춤번' 기간을 앞두고 재한 캄보디아 주민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법회와 탁발, 공양을 함께하고 캄보디아 전통공연을 즐기며 고국의 명절을 함께 기념했다. 이현희 기자

제5회 생명나눔대상 후보자 공모

대상·홍보상·생명상·나눔상 등
10월 23일까지 우편·이메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제5회 생명나눔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부문은 △대상(생명나눔 전 부문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홍보상(언론과 출판, 문화 부문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생명상(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나눔상(봉사·기부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이다.

양식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홈페이지(www.lisa.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10월 23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11월 14일 '제16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에서 열린다. 임은호 기자

올해의 포교사 충북지역단 남부불교문화봉사팀 김영매

말보다 행동으로, 함께하는 포교

2026 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
청년시절부터 지역 포교 활동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직접 봉고차에 태워 어린이법회를 이어가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아이들과 도배 봉사를 해온 포교사가 있다. 말보다 행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지역에서 묵묵히 전법행을 이어온 김영매(66)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 남부불교문화봉사팀 포교사다.

9월 12일 장성 백양사에서 열린 제22회 팔관재계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은 김 포교사가 포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함께'다.

"어렵고 힘든 일도 함께하면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20년간 건설회사에 종사하고 13년간 돌봄·보육사로 일하면서도 포교활동을 놓지 않았다. 2010년 15기 포교사 품수 후에는 지역 불법 홍포에 힘을 쏟았다. 충북지역단 팀장을 맡으면서 지역 축제 등에서 불교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불교를 알렸다.

그의 전법행 시작은 포교사가 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탈골암 주지 혜운 스님이 보은 대원불교회관을 인수하면서 회관 관리를 맡게 된 것이 계기였다.

어느 날 법회에 참석한 어린이에게 "친구들도 함께 놀러 오라"고 권하면서 어린이법회가 시작됐다. 아이들이 늘어나자 혜운 스님은 봉고차를 지원했고, 김 포교사는 직접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며 어린이법회를 이어갔다. 김 포교사는 아이들에게 자비를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 방학이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도배와 장판 교체 봉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잊지 못할 기억도 남겼다.

"한 아이가 보이지 않아 찾아 나섰는데, 눈이 벌게져서 나왔어요. 검은 봉지를 들고 와서 할머니에게 건네더라고요. 먹을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지금도 뭉클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아이가 마음을 내어 준비한 것이었다.

그 아이는 청년이 돼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이 받았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자비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김 포교사는 지인들에게도 불교를 직접 권하기보다 자신의 삶으로 가르침을 보여준다.

"삶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종교가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불교를 통해 좋은 일을 실천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에게 포교는 거창한 일이 아니다. 먼저 움직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좋은 일을 함께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전법이다. 그래서 이번 총무원장상도 혼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팀원들과 함께 애써서 얻은 결과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혼자보다 함께하는 포교. 김 포교사는 오늘도 자신의 삶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람들과 함께 전법의 길을 걷고 있다. 박지운 기자

후반기, 종책모임 재편 속 '격론'

1면에서 이어짐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후반기는 종책모임 지형이 재편되는 가운데 종헌·종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비구니 법계위원이 처음 탄생하는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와 장로대종사 신설 등을 담은 종헌 개정안은 잇따라 부결됐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로 회의장을 옮기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특히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에는 임시회 두 차례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면서 종책모임 간 대립도 표면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022년 11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8대 중앙종회 개원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개원식 후 기념촬영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선우회 · 정법회 출범…지형 변화

후반기 중앙종회는 원구성부터 이전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2024년 11월 열린 제232회 정기회에서는 주경 스님이 49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의장단 선출이 합의가 아닌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것 역시 종회 내부의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줬다.

앞서 제232회 정기회 개원을 앞둔 10월 24일에는 성로·제정·법원·보인·해량·덕림 스님 등이 참여한 선우회가 출범했다. 선우회는 중앙종회가 입법·대의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창립 취지로 내세웠다.

2025년 8월에는 화엄1·2·3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법회가 출범했다. 정법회는 종헌·종법 개정과 중앙종회의 입법·대의 기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종책질의 등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2026년 들어 선우회와 함께 '공감과 미래'라는 연대 형태로 움직이면서 중앙종회 내 세력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는 종책모임 간 입장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여야 구도도 선명해졌다. 다만 이러한 구도가 제19대 중앙종회에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동화사 총림 해제…교구 · 종회 갈등

후반기 초반에는 동화사 총림 해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중앙종회는 2025년 3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팔공총림 동화사를 총림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긴급 발의된 안건으로, 73명이 투표해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림은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동화사는 총림 해제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중앙종회 역시 동화사의 대응을 비판하는 담화문을 내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졌다.

2025년 6월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동화사와 관련한 부당·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됐다. 특위 구성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지만, 정회와 속개를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동화사특위는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인사권과 금전 수수의 정황 △교구 현안(팔공총림 해제)과 연계된 서명 강요 및 조직적 동원 △재정·회계 관리의 구조적 부실 및 투명성 결여 등을 담은 보고서를 11월 236회 정기회에 제출했다.

화재로 긴급 대피…회의장 변경도

후반기 종회 운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였다.

2025년 6월 10일 제234회 임시회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던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의원들이 긴급 대피했다. 이후 회의는 조계사 불교대학 교육관으로 옮겨 속개됐다.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는 회의를 바로 폐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사·결산검사 등 시급한 안건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거수표결 결과 55명 중 35명이 찬성하면서 일부 안건을 처리한 뒤 회기를 단축해 폐회하기로 했다. 종헌 개정안과 종무보고, 종책질의 등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18대 중앙종회는 2022년 11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26회 정기회를 열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화재 복구가 이어지면서 제235회 임시회와 제236회 정기회는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회의장 변경은 회의 일정과 안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계 자동 품수…종헌 충돌 논란

법계법 개정도 주요 논쟁이었다.

제236회 정기회에서는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스님이 자동으로 법계를 품수하도록 하는 법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종사·명사 법계 품수 요건을 갖춘 스님이 3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특별전형에 따른 심사 부담을 줄이고 법계 품수 절차를 정비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종헌 제28조가 원로회의에 2급 이상 법계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어 종헌과 개정 법계법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제19대 중앙종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제237회 임시회에서는 대종사보다 상위 법계인 '장로 대종사'를 신설하는 종헌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대종사 위에 상위 법계를 두는 방식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찬성 23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사면 · 복권 첫 시행…원로의원 6명

종단 내부의 징계와 권리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사면·경감·복권도 처음 시행됐다.

제236회 정기회에서는 201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면·경감·복권 동의안이 상정됐으며, 총 10명에 대한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권리가 제한됐던 수불 스님이 복권됐고, 제적 징계를 받은 선각 스님은 사면·복권됐다.

원로의원 추천도 이어졌다. 후반기 동안 보광·장윤·도명·도법·영담·정완 스님이 차례로 신임 원로의원에 추천됐다.

대립 속 두 차례 임시회 무산

제18대 후반기의 마지막은 안건 처리보다 '성원' 자체가 문제가 됐다.

2026년 3월 열린 제237회 임시회는 종책모임 간 치열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며 종회 내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6월 제238회 임시회는 재적의원 81명 가운데 24명만 참석해 개원 정족수 41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7월 제239회 임시회 역시 22명만 참석하면서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공감과 미래' 측은 총무원장 선거가 있는 해에도 임시회가 열린 전례를 들어 종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는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사전에 의견을 모아 집단적으로 불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감과 미래'는 종회 무산 이후 총무원장 스님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이후 중앙종회의 책무가 멈췄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종회 성원을 촉구하며 단식 정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새롭게 구성될 제19대 중앙종회에는 종헌·종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이견이 큰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제가 남았다.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고 종단의 제도를 다듬으며, 종책모임 간 합의점을 찾아가는 입법·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김내영 기자

비구니 참종권 확대 '한 걸음 더'


2022년 9월 15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32차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제18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5000여 비구니 스님의 목소리를 종단 의사결정 과정에 전달하는 한편, 비구니 승가의 참종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기울였다.

첫 공식 선거…책임 · 대표성 높여

18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그동안 전국비구니회는 관례적으로 비구니 종회의원 10석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종회의원 자질과 책임성을 넓히고 보다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처음 실시된 선거에는 13명이 입후보했다. 9월 15일 제3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정견 발표와 투표가 진행됐다. 후보자들은 비구니 권익 향상과 승가교육 및 복지체계 개선, 종단과의 소통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투표 결과 교학·수행 분야에서 진상·철우 스님, 포교 분야 정운·혜도 스님, 복지 분야 정관·지인 스님, 행정 분야 법해·설해 스님, 사회·문화 분야 혜성·진명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입법 · 종책질의로 활발한 의정

종회의원 스님들은 비구니 승가의 권익 향상뿐만 아니라 종단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종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3월 열린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 간담회'에서 공개된 활동 자료에 따르면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해, 이 가운데 2건이 통과됐다. 또 전국비구니회와의 연계 활동을 비롯해 종단 및 대외활동, 각종 간담회와 특별면담 등 활동 내역도 43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역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종책 활동을 모색한 것도 의미가 크다.

법계위원 신설…제도적 성과

18대 종회의 가장 큰 성과는 종단 최초의 비구니 법계위원 탄생이다.

2025년 3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사에 비구니 법계위원 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계법을 개정했다. 이어 제234회 임시회에서 본각·계호·광용 스님의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했다. 이는 비구니 승가의 수행 특성과 경험을 종단 제도·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계위원 참여는 19대 과제로

반면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는 끝내 풀지 못한 숙제가 됐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한 59명의 의원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은 비구니 관련 사건을 심판하는 초심호계원에 비구니 호계위원 2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제235회 임시회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종헌 자구의 정합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월됐다. 이후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종단 각계 스님들을 직접 찾아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제236회 정기회에서 실시된 표결에서 재적의원 81명 가운데 75명이 투표해 찬성 53표, 반대 22표를 기록했다. 종헌 개정에 필요한 54표에서 한 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제237회 임시회에서도 찬성 37표, 반대 38표로 또다시 부결되면서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는 19대 종회의 과제로 남겨졌다.

여수령 기자





범어사서 명품 보이차 선보여

범어사, '백팔 노보이차 대전' 개막
시대별 보이차 130여 종 선보여
韓·대만 문화 교류의 장으로 눈길
풍성한 다도(茶道) 행사 연이어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범어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2026 특별전 '백팔 노보이차 대전: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을 개최한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오랜 세월 숙성된 보이차의 깊은 향과 선(禪)의 묘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범어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2026 특별전 '백팔 노보이차 대전: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1950년대 이전 민간 차장의 혼이 담긴 호급차(號級茶)부터 1950~70년대 국가 차엽 공사의 인급차(印級茶), 1970년대 이후 현대 보이차의 대중화를 이끈 칠자병차(七子餠茶) 등 시대별 명품 노보이차가 총망라됐다. 특히 국내외 차인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며 당초 예정된 108점을 넘어 130여 종의 진귀한 차품이 전시돼 이목을 끈다.

본격적인 전시의 막을 올린 10월 2일 개막식은 한국과 대만의 차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경기민요 전수자 김명서 등 4중주단의 국악 공연과 대만 연주자 구심열·구심의의 비파 연주가 성보박물관 중정에 울려 퍼지며 행사의 품격을 더했다.

이날 자리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등시해(보이차계 차왕), 백수청(보이차계 교부), 저우쯔(홍콩 사굉경매 총재) 등 세계 다도계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대만의 '인간국보'로 불리는 첸즈쑨은 범어사 현판을 직접 제작해 기증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한 잔의 노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마음을 맑게 비추는 선(禪)의 통로이자, 시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익어감의 결정체"라며 "오랜 세월을 견디며 깊은 향과 맛을 품어낸 노보이차는 끊임없는 정진으로 마음을 비워내는 수행자의 삶과 참으로 닮아 있다"고 전시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시 공간 곳곳에는 효원 박태만 서예가의 작품이 함께 걸려 차선(茶禪) 일체의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튿날인 10월 3일에는 성보박물관에서 '보이차계의 대부' 백수청 선생의 특별 강연 및 시음회가 열렸다. 백 선생은 자신의 차 인생을 비롯해 보이차의 산지와 품질, 맛을 감별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이무 지역의 생차, 백 선생이 2008년 직접 제작한 차, 1950년대 홍인 계열의 노차 등 희귀한 차를 직접 시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뜻깊은 위촉식도 진행됐다. 대만 중화차업협회는 한국과 대만의 지속적인 우호 증진을 위해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한국우호 부회장'으로, 하윤당 김상숙 원장을 '한국우호 고문'으로 각각 위촉했다.

이번 '백팔 노보이차 대전'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지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매주 월요일 휴관). 범어사는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 누구나 차의 풍미를 즐길 수 있도록 특강 및 유료 행사가 없는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층 기획전시관 입구에서 무료 시음회를 상시 운영한다.

차에 대한 깊이를 더할 특별한 행사들도 준비돼 있다. 오는 10월 17일과 24일 오후 2시에는 1950년대와 80년대 명품 청병을 맛볼 수 있는 유료 시음회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또한 10월 27일 오후 2시에는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홍콩 사굉경매회사 총재이자 보이차 대장가인 저우쯔(周子) 총재를 초청해 일반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인사 "조사 뜻 잇고 계율 새긴다"

10월 16일, 개산 122주년 다례재
16~17일 66회 보살계 수계대법회
도량 곳곳 '국화장엄'…자비나눔도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개산 1224주년을 맞아 개산종조와 역대 조사의 뜻을 기리고 계율과 경전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대규모 법석을 마련한다.

개산종조 및 역대 조사 다례는 16일 오전 10시 대적광전에서 시작해 조사전과 비림으로 이어진다. 해인사 개산조인 순응·이정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기리고, 법보종찰의 수행가풍을 이어온 역대 조사들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다.

오후 4시부터는 제66회 보살계 수계대법회가 시작된다. 동참자들은 대적광전 앞에 모여 경내 각 전각을 참배하고 저녁예불에 동참한다.

오후 7시 보경당에서는 '해인삼매 법문'을 주제로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과 팔만대장경연구원장 경암 스님, 율학승가대학원장 금강 스님이 차례로 법문한다.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는 철야기도를 봉행한다.

17일 오전 9시 30분에는 탑마당에서 육법공양과 헌향·헌다·헌화 등 불공의식을 봉행한 뒤 해인총림 방장 대원 대종사의 수계법문을 청한다.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보살계 수계의식이 진행된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을 전계아사리로, 경암 스님을 갈마아사리로, 금강 스님을 교수아사리로 모신 가운데 동참자들은 관정과 연비의식을 통해 계를 받아 지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서원한다.

오후 1시에는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완독대법회' 제17회 독경이 봉행된다. 〈화엄경〉 독경과 축원, 회향게에 이어 꽃비를 뿌리는 산화락으로 법석을 장엄하며 자비나눔기금 전달식도 열린다.

오후 2시부터는 화엄시식과 장경판전 순례가 이어진다. 동참자들은 영단에 꽃을 올려 영가를 추모하고,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장경판전을 순례하며 법보종찰의 역사와 수행정신을 되새긴다. 이후 해인도 요잡과 소전의식을 봉행하고 계첩을 배부하며 수계대법회를 회향한다.

이와 함께 10월 한 달간 일주문과 대적광전 일원에서 '천년의 가을, 해인사 국화향에 물들다'를 주제로 국화전시를 진행한다. 도량 곳곳에 연꽃과 코끼리, 탑 등을 형상화한 다양한 국화 조형물이 선보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울경 화합의 하모니 '제3회 통도사 합창제'

10월 5일, 통도사 특설무대서
말사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협연
어린이합창단 첫 무대 올라 감동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개산 1381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 기간 중 산사를 찾은 시민에게 화합과 상생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통도사는 10월 5일 삼성반월교 옆 야외무대에서 '제3회 통도사 합창제'를 개최했다. '마음을 모아, 하나의 화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합창제는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을 비롯해



부울경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 합창단이 동참해 무대를 빛냈다. 합창단은 울산 정토사 태화합창단, 마산 정법사 분다리카합창단, 김해 동림선원 불모합창단, 울산 정토사 가람어린이청소년합창단, 부산 홍법사 불광합창단, 울산 백양사 삼보합창단 등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대구스트링스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각 합창단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참가 단체들은 '마하반야바라밀', '석불의 고뇌', '촉루품' 등 정통 찬불가뿐만 아니라 대중 가요를 함께 불러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통도사 어린이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3월 창단된 어린이합창단은 이날 '달려라', '다 잘 될 거야'를 합창하며 불교와 삶을 연결하는 노래 공양을 올렸고, 관객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이와 함께 퓨전국악팀 '국악인가요'와 남성 팝페라 그룹 '빅맨싱어즈'의 특별 공연이 더해졌다.

공연의 대미는 전 출연진이 함께하는 연합 합창이 장식했다. 모든 합창단원이 한목소리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통도사의 향',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노래하며 화합의 절정을 이뤘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합창이라는 방편을 통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도반들과 마음을 나누어 온 시간들이 단원들의 신행에 깊은 자양분이 됐을 것"이라며 "통도사 합창제가 산문 안팎에 잔잔한 울림을 전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덕민 대강백 초청 '선문염송' 특강

11월 1~3일, 선문화관서
승가 대상 선불교 진수 전해



한국 선불교의 중심이자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인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선문화관 강당에서 일해당 덕민 대강백 초청 '선문염송(禪門拈頌)'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전국의 승가(비구, 비구니)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 시간은 11월 1일과 2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일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이번 특강은 근대 한국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범어사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경허, 동산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이 주석하며 납자들을 길러낸 참선 근본도량 범어사가 선불교의 중흥을 이끌고 수행 가풍을 진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강의 텍스트인 〈선문염송〉은 고려시대 수선사 진각국사 혜심(慧諶) 스님이 1226년 편찬한 불교 공안집이다. 역대 조사들의 공안 1125칙에 후대 선사들의 염(拈)과 송(頌) 등 착어를 집대성했다. 간화선 수행자들에게는 본래면목을 찾는 데 필요한 핵심 지침서, 이른바 '화두공부의 문을 열어주는' 책으로 알려졌다.

강연을 맡은 일해당 덕민 스님〈사진〉은 승가에서 대표적인 강백으로 꼽힌다. 1954년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1968년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청암사와 흥국학림 등에서 수학하고 태동고전연구원에서 한학을 연찬했다. 범어사와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기림사 성림금강학림 대학원장을 맡으며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051-508-3122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명대사 애민정신 계승"

10월 6일, 부산불교연합회
열반 416주기 추모대재 봉행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10월 6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 열반 제416주기 추모대재'를 엄수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회장 정오 스님과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1부 행사인 호국충혼대재는 부산영산재보존회가 주관했다. 불교 전통 작법과 바라춤이 펼쳐지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2부 추모대재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의 음성 공양과 사부대중의 헌화 및 육법공양으로 문을 열었다.

회장 정오 스님은 대재사를 통해 "대사의 헌신은 불교적 자비의 완성"이며 "현재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대립을 부처님의 지혜로 녹여내는 것이 호국불교의 참된 계승"임을 역설했다.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동체대비의 원력으로 서로를 보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불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윤희 신도회장은 호국발원문 낭독을 통해 "선사의 깊은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화합과 국가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부처님 전에 올렸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법사, 비로선원 선명상센터 개원

10월 3일, 정법연화축제 개최
차·명상·불교문화 아우른 공간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창건 114주년을 맞아 차와 명상,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를 열고 도심 속 새로운 수행 공간인 '비로선원 선명상센터'를 개원했다.

정법사는 10월 3일 경내 일원에서 '창건 114주년 정법연화축제 및 비로선원 선명상센터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114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사찰의 문턱을 낮춰 차와 명상, 문화로 시민들과 만나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길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

'비로선원 선명상센터'는 정법사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이어온 포교 원력을 오늘의 시대에 맞는 수행문화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비로선원은 170평 규모로 지하 1층 '소래원'은 소리·영상을 활용한 명상공간으로, 1층 '무디따'는 차문화와 대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2층 선방에는 화엄삼존불과 법성화엄도를 봉안해 참선과 명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지 광우 스님은 "앞으로 수행과 명상, 정진과 기도가 살아 숨 쉬는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곤론마루호 희생자 추모제 봉행

10월 5일, 대원각사 특설무대



83년 전 일본 앞바다에서 침몰한 관부연락선 곤론마루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전쟁 없는 평화를 발원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부산 대원각사(회주 안도 스님)는 10월 5일 '제12회 곤론마루호 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했다. 한일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불교·기독교·성공회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했다.

황령사 주지 정산 스님은 추모사에서 곤론마루호 사건을 비롯해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날의 희생을 단순한 숫자로 기록되는 역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삶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조선인이나 일본인이나 국적과 시대를 넘어 희생한 모든 영령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추모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국악과 명상으로 마음을 쉬다

광산사 '휴 명상음악회' 개최



창원 광산사(주지 해륜 스님)가 전통 국악과 불교 명상을 접목해 일상에 지친 대중에게 쉼과 마음의 평안을 전했다.

10월 5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회 '휴(休) 명상음악회'는 가야금 선율을 통한 이완 명상,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호흡집중명상, 감각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통합명상 등 네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국악의 잔잔한 선율과 싱잉볼의 맑은 울림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며 내면의 고요를 체험했다.

통합명상을 지도한 주지 해륜 스님은 "생각은 없앨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다"며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휩쓸리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산사는 이날 제5회 산사음악회 '천년의 울림, 광산사 음악회'도 마련해 지역민과 함께 가을 산사문화의 장을 이어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문경세계명상마을, 12월엔 '쟌 세븐데이'

12월 5~11일, 7일간 집중 참선
휴대전화 반납하고 좌선 · 행선
2022년부터 3200여 명 참가
각산 스님 지도…선착순 접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집중 참선 프로그램 '쟌 세븐데이(Jhan Seven Day)'를 진행한다.

문경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 스님)에 따르면 '쟌 세븐데이'는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일주일간의 집중 수행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연인원 3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수행은 올해 마지막 일정이며, 앞서 진행된 8월과 10월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됐다.

'쟌(Jhan)'은 삼매와 선정을 뜻하는 팔리어 '쟈나(Jhāna)'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불교 전통의 전승 과정에서 중국에서는 '챤(Chan)', 일본에서는 '젠(Zen)', 한국에서는 '선(禪·Seon)'으로 자리 잡았다.

쟌 세븐데이는 초기불교 수행법인 안반선(아나빠나사띠)과 한국불교의 화두명상인 간화선을 아우르며 사마타와 위빠사나, 정혜쌍수의 통합 수행을 지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입소와 함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수행에 집중한다. 좌선과 행선(걷기명상)을 병행하며 철저히 묵언을 유지한다. 매일 조별 개인 수행 점검이 진행되며 염력명상 체험과 저녁 법문도 마련된다.

참가 인원은 80명이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인의 반복 신청은 제한하고 있다.

숙박과 식사는 무료로 제공된다. 단, 무단 불참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비 9만원을 받으며 국가유공자는 접수비의 30%를 할인한다. 숙소는 다인실을 기본으로 하며 1인실인 '꾸띠'와 특실은 별도 후원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수행 지도는 문경세계명상마을 선원장이자 사단법인 한국참선지도자협회 회장인 각산 스님이 맡는다.

각산 스님은 해인사에서 출가한 뒤 제방선원과 태국 숲속 수행처, 미얀마 파욱센터, 호주 보디냐나 등 국내외 수행처에서 정진했다. 2016년에는 국내에서 세계명상대전(WMC2016)을 개최하며 명상 대중화에 나선 바 있다.

각산 스님은 "'쟌(禪)'은 윤회로부터 해탈·열반하는 확철대오와 팔정도, 일행삼매의 불교 수행"이라며 "완전한 깨달음인 돈오돈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마음이 통달되면 세상이 통달된다"며 "세계명상마을의 쟌 세븐데이 수행을 통해 자신을 깨우고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 접수가 불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해야 한다.

아도 화상 '천년향' 도리사서 다시 피어나다

10월 3일, 제10회 향문화대제전
천년수향식 · 아도 화상 헌향재 등


구미 도리사가 10월 3일 개최한 제10회 향문화대제전에서 '천년향'을 이운하는 모습.

신라에 불교와 향을 전한 아도 화상의 전법정신을 기리고 우리 전통 향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향문화대제전이 구미 도리사에서 봉행됐다.

구미 도리사(주지 현관 스님)는 10월 3일 '도리사 개산 1609년 제10회 향문화대제전'을 개최했다.

향문화대제전은 신라불교 전래 1600년을 기념해 2017년 시작됐다. 도리사는 전통 불교 향례의식을 복원하고 이를 정례화해 향문화가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써왔다. 올해 행사는 천년수향식, 천년향 이운, 아도 화상 헌향재, 향연제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의 문을 연 천년수향식은 1600여 년 전 아도 화상이 신라에 전한 향을 현재로 이어받는 의식이다. 천년향을 향연에 모셔 도리사 경내를 행렬하는 이운이 진행됐으며, 아도 화상의 전법정신을 기리는 헌향재가 봉행됐다. 마지막으로 사부대중과 시민이 함께하는 향연제가 열려 전통 향문화의 의미를 나눴다.

특히 올해 행사는 향을 정신문화이자 생활문화, 그리고 미래 문화콘텐츠로 확장하려는 도리사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부주지 인월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향문화대제전이 아도 화상의 용기와 개척정신을 일깨우는 각성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들이 구미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원했다.

아도 화상이 신라에 불교와 함께 향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삼국유사〉 등에 전해진다. 신라 눌지왕 때 고구려에서 온 아도 화상이 향을 통해 불교를 알리고, 병든 성국 공주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다.

도리사는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향과 명상, 치유를 결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향을 피워 올리는 의례를 넘어 향을 매개로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1600여 년 전 신라에 전해진 한 줄기 향이 불교문화와 함께 이어져 오늘날 지역의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확장되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탄신 177주년 경허 스님 가르침 새겨

수덕사, 10월 4일 다례재 봉행
설정 스님 "맑은 마음 살펴야"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10월 4일 대웅전에서 경허당 성우대선사 탄신 177주기 다례 및 합동다례재를 봉행했다.

9세에 출가한 경허 스님은 동학사에서 만화 보선 스님에게 경전을 배우며 학문을 익혔다. 유불선의 학문을 두루 섭렵했고 젊은 나이에 강사가 돼 전국에서 학인들이 찾아올 만큼 이름을 떨쳤다.

어느 날 죽음의 문제를 현실에서 마주하면서 자신이 해온 공부를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된 경허 스님은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선 수행에 들어갔다. 수행 끝에 견성에 이른 스님은 쇠퇴했던 선풍을 다시 일으키고 후대에 수행의 길을 제시하는 법문을 남기면서 한국 근대 선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열었다.

다례재에서 설정 스님은 "본래 맑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인의 진실한 진리를 맛볼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도광·도천 대종사 유훈 이어 전법 매진"

화엄사, 10월 3일 합동 다례재
수행가풍 · 노동선 정신 새겨



근현대 화엄사의 두 기둥으로 불리는 리산당 도광 대선사와 도천당 도천 대종사의 수행정신을 기리는 추모의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10월 3일 각황전과 부도전에서 '리산당 도광 대선사 원적 42주기·도천당 도천 대종사 원적 15주기 합동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화엄사 문장종국 스님과 회주 종렬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정여·돈명 스님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 명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생전 도광·도천 대종사의 육성법문을 들으며 두 선사가 남긴 가르침과 수행자의 삶을 되새겼다. 이어 영전에 향과 차, 꽃을 올리며 평생 수행과 후학 양성에 헌신한 뜻을 기렸다.

행장을 소개한 종고 스님은 검은 고무신에 바랑을 메고 제방을 다니며 수행자의 본분을 지켰던 도광 스님의 수행가풍과 평생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던 도천 스님의 '노동선(勞動禪)' 정신을 소개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두 큰스님의 법향을 기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화엄문도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유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례재를 마친 사부대중은 부도전에서 두 스님의 부도를 참배하고 일생 동안 보여준 수행과 후학 양성, 불교 중흥의 원력을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갈 것을 서원했다.

리산당 도광 대선사(1922~1984)는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1937년 범어사에서 동헌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봉암사·백양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하며 정진했으며, 도천 스님과 함께 담양 보광사를 창건하고 불교정화운동에도 헌신했다. 백양사·범어사·용주사·화엄사·해인사 등 주요 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80년 화엄사 주지로 취임해 중창불사를 이끌었다. 1984년 세수 63세, 법랍 47세로 원적에 들었다.

도천당 도천 대종사는 1910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 1941년 금강산 만회암에서 출가했다. 표훈사에서 도광 스님과 도반의 인연을 맺고 수행했으며, 1949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담양 보광사 창건과 선원 수행, 후학 양성에 힘썼다. 특히 '일이 수행이고 수행이 일'이라는 노동선의 가풍을 몸소 실천하며 평생 정진했다. 2011년 금산 대둔산 태고사에서 세수 102세, 법랍 83세로 원적에 들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음식 만들며 마음 쉬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10월 4~5일과 9~10일 '사찰음식으로 여유와 힐링을 찾다'를 주제로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을 위한 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소방서와 지역난방공사, 수목원, 학교 교사 등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이 신청했다. 참가자들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과 음식을 만들며 평소 느끼지 못했던 활력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범패·작법무로 되살린 불국정토

10월 3일 광주영산재 22차 시연
범음 · 범패 명인 등 전승자 참여



범패의 장엄한 법음과 작법무가 무등산 자락에 울려 퍼지며 전통불교의식인 영산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호산 스님)는 10월 3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제22차 광주영산재 공개 시연회'를 봉행했다.

이번 시연회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전통을 잇고 신명을 나누다'를 주제로 열린 '2026 무등울림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연에는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광주영산재 범음 분야 명인 혜령 스님과 범패 분야 명인 호산 스님,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 회원 스님들이 참여했다.

영산재 시연은 도량으로 불보살과 옹호성중, 영가를 청하는 '시련의식'을 시작으로 병천·제석천·사천왕·팔부호법신중 등을 청해 도량을 수호하기를 발원하는 '신중작법'으로 진행됐다. 이어 영가의 업을 씻고 청정하게 하는 '대령관욕', 지장보살을 청해 영가의 명복과 해탈을 발원하는 '상주권공(지장청)', 영가전에 공양을 올리는 '관음시식',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보내드리는 '봉송의식'이 차례로 펼쳐졌다.

광주영산재는 2014년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는 1981년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위령대재를 시작으로 영산재 시연과 전승 활동을 이어왔으며, 1992년 전통불교영산회 창립을 거쳐 2006년 사단법인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를 설립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적음 대선사 65주기 추모다례

공주 신원사, 10월 3일 봉행



공주 신원사(주지 성관 스님)는 10월 3일 부도탑과 대웅전에서 '초부당 적음 대선사 열반 65주기 추모다례'를 봉행했다.

초부당 적음 대선사는 1900년 11월 1일 경북 군위에서 태어나 15세에 김천 직지사에서 제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직지사에서 수선안거를 지내고 1927년 사교과를 마쳤으며, 1930년 만공 스님에게 입실건당해 '초부(草夫)'라는 법호를 받았다.

이후 1931년 선학원 상임포교사, 1934년 조선중앙선리참구원 상무이사를 거쳐 선학원 제3·5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1935년 조선불교선종 종헌 반포 당시 총무부장에 취임하고 범행단을 결성해 청정비구승단의 기틀을 닦았다. 1954년 정화운동 발기인대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효봉 스님과 공동명의로 전국비구승대회를 소집하는 등 교단 정화에 힘썼고, 1955년 마곡사 주지에 취임했다. 1961년 10월 3일 세수 61세, 법랍 39세로 입적에 들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종협 대종사 23주기 추모다례

대구 파계사, 10월 6일 봉행



대구 파계사(주지 현봉 스님)는 10월 6일 설법전에서 고송당 종협 대종사 열반 23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고송문도회와 일우문도회 스님들과 파계사 주지 현봉 스님, 신도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종사 영전에 꽃과 차를 올리며 스님의 삶을 기리고, 가르침과 수행정신이 후학들에게 이어지기를 발원했다. 이어 참석 대중은 부도탑을 참배했다.

다례재 후에는 문도와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10월 15일 치러지는 제19대 동화사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고송문도회 대표로 출마한 명진 스님(파계사 총무국장)이 문도 스님들에게 출마의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파계사는 내년 종협 대종사 탄신 121주년을 맞아 탄신일인 음력 10월 10일에 맞춰 추모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강릉 보현사 '산사천년문화제'

10월 3~4일 산신대재 · 음악회 등



강릉 보현사가 자장 율사와 범일국사, 낭원 대사 등 강릉 불교문화의 큰 스승들을 기리고 천년 불교문화를 계승하는 문화의 장을 펼쳤다.

강릉 보현사(주지 승원 스님)는 10월 3~4일 '2026 보현사 산사천년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산사천년문화제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산신대재를 비롯해 삼대화상 다례재, 산사음악회, 사찰음식 전시, 차문화 체험, 불교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문화제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산신대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삼대화상 다례재를 봉행하며 자장 율사·범일 국사·낭원 대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렸다. 경내에서는 '절제와 기다림의 미학'을 주제로 한 사찰음식 전시와 차문화 체험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통 사찰음식에 담긴 수행과 절제의 의미를 살펴보고 차를 직접 체험하며 산사의 여유와 불교문화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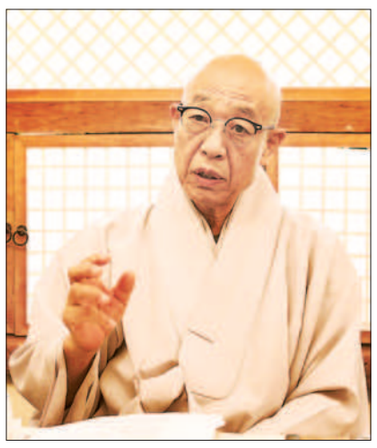
“인도철학은 불교학 뿌리, 함께 가야”

동국대 인도철학총동문회 심포지엄
“학과 재건 · 연구 저변 확대 강구”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10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동국대학교 인도철학총동문회 추계 심포지엄’.



동국대학교 인도철학총동문회장 선일 스님.

“불교는 고대 인도의 종교·철학적 전통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기초 학문인 인도철학이 약해지면 그 위에 서 있는 불교학 역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함께 가야만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옵니다.”

인도철학의 기초 복원 없이는 세계적 흐름에 맞춘 한국 불교학의 발전도 어렵기에, 인도철학과 불교학의 깊은 이해가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관 인도철학회장(상지대 교수)은 10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동국대학교 인도철학총동문회 추계 심포지엄’에서 “지난 20~30년간 해외 학계는 인도학과 불교학의 경계를 허물며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 학계는 단기 성과와 경제 논리에 밀려 과거보다 후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회장은 이날 ‘한국에서 인도철학 연구의 현황과 미래’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과거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시작으로 팔리어, 티베트어 등 3대 고전어를 모두 이수해야 했으며, 졸업 전 원전 강독이 이뤄져 대학원 진학 후에도 원전 연구에 부담이 없을 정도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인도 불교사, 베다, 우파니샤드, 육파철학은 물론, 인도 신비주의, 인도미학, 인도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학문적 저변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6년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따른 학제 개편으로 분위기는 급변했다. 심 회장은 “선학과·불교학과·인도철학과의 통폐합으로 학생들에게 당장 쉬운 과목만 선택하게 하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교원 수가 줄고 커리큘럼이 대폭 축소됐다”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량과 학문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교대학원과 불교학술원의 교원 중 인도학이나 인도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수십 년간 한국 불교학계가 수많은 학자를 배출했음에도 세계 학계를 주도하는 거장이 나오지 못한 이유 역시, ‘기초 토대(코어)’의 부실에서 찾았다. 한국 학계가 인도철학을 ‘외도’로 폄하하며 편파적인 공부에 머무는 사이, 세계 학계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심 회장은 “최근 20~30년간 해외 학계에서는 인도철학자와 불교학자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유기적으로 통합해 혁신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전 문헌에 대한 인접 학문적 접근을 통해 불교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혁신적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 회장은 해외에서는 베다학, 고전요가, 탄트라 등 다양한 분과에서 수많은 학자가 모여 연구 중이며, 이들 학자 수를 합치면 불교학자 전체 규모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불교 문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배경이 된 고전인도학과 종교·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UCLA의 카렌 멀둔 교수가 불교 문헌 〈아바다나샤따까〉를, 세계적인 마하바라타 연구자인 힐테베이텔 교수는 마명 보살의 〈붓다차리타(불소행찬)〉를 연구하면서 각각 베다 문화의 결혼 의례와 인도 서사 전통을 통해 불교 문헌을 새롭게 해석해 낸 사례를 들었다. 심 회장은 인도철학 관련 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불교학 연구도 발전할 수 있다며 동국대 인도철학과와 고전인도학의 교육 기반을 부활시키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총동문회가 과거 인도철학과 폐지 결정의 적절성을 재조명하고 반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총동문회는 앞서 10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인도철학 연구 환경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학과 부활·신설을 목표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총동문회장 선일 스님은 “조 단위의 큰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인도철학과를 없애고 축소한 것은 건학 이념을 무시한 비합리적 처사”라며 “동문회 차원에서 인도철학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고취하고, 인도불교철학 저변을 넓혀 한국불교의 세계불교화를 이끌 실천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사 땅설법 속 불교지화

한국땅설법학회 제5회 학술대회
10월 17일 국립민속박물관서

한국땅설법학회(회장 김용덕)와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장상훈)은 10월 17일 오후 1시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에서 ‘불교지화 장엄의 계승과 의의’를 주제로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이 전승해 온 전통 불교지화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불교지화의 보존·전승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민속·불교미술·사상 분야 전문가 4명이 발표자로 나선다.

기조강연은 편무영 일본 아이치대학 명예교수가 맡아 ‘불교민속학적 연구 방법과 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편 교수는 붓다의 가르침과 비유가 공존하는 불교민속을 규명하기 위해 경전 연구와 현장 비교 분석의 병행을 강조하고, 안정사 땅설법을 불교민속학 측면의 최적 연구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오정아 중흥고 교사의 ‘땅설법 속 지화, 불탄화(佛誕華)의 상징과 탄생게(誕生偈)의 의미 고찰’ △전영숙 연세대학교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의 ‘불교지화 불정화의 도상과 상징성-오불정다라니 신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효림 씨(금강대 박사수료)의 ‘땅설법 지화의 법화경적 의미체계와 홍포 기능 연구-안정사 전승지화를 중심으로’ △신명숙 Eco 함께 가는 살풀이연구소 대표의 ‘교외별전(教外別傳)의 땅설법 지화와 바라춤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 후에는 이수자 전 안성여자기능대학장과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의 총평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배희정 기자

법정 스님 철학 조명 학술대회

맑고향기롭게 11월 8일 길상사서
학술상 시상식 · 수상 논문 발표도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조 스님)는 11월 8일 오후 1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법정 스님의 철학에 담긴 현대인의 삶과 비전’을 주제로 제2회 법정 스님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 학술세미나에서는 박경준 동국대 명예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불교생태학적 실천론’을, 윤용복 아시아종교연구원장이 ‘탈종교 시대, 법정 스님의 삶이 던지는 비종교적 화두’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논평은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와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가 맡는다.

여태동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법정 스님의 사상 연구를 장려하고 한국불교 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확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법정 스님 학술상’의 수상 논문 발표회가 열린다. 전체 심사평 공개와 함께 수상자들의 연구 논문이 소개될 예정이다.

발표회에서는 대상 청라 스님의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과 인성 교육적 함의: 생태적 인성을 중심으로’, 최우수상 지엄 스님의 ‘법정의 떠남과 화성유, 무소유의 방편성과 개권현실’, 우수상 류원섭 씨의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의 현대적 재해석: 디지털 과잉 사회에서의 관계와 마음돌봄을 중심으로’가 각각 발표된다.

세미나에 앞서 개회식은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의 개회사, 고영섭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장의 심사평 발표, 학술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02-741-4696 배희정 기자

‘지관’의 본질을 탐구하다
〈止觀〉

밝은사람들硏, 25회 학술연찬회
11월 7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서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11월 7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지관, 함께 닦는가 따로 닦는가’를 주제로 제25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수행(명상) 3개년 기획의 두 번째 행사로,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를 좌장으로 5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통합과 분리’ 주제 발표를 통해 초기 경전의 지관 수행이 세분화된 과정을 추적하며 고요함(지)과 통찰(관)의 조화가 불교 수행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안성두 전 서울대 교수는 ‘대승불교 수행도에서 샤마타와 비파샤나의 작용 방식’을 주제로 ‘지관쌍운(止觀雙運)’ 개념의 성립과 변천을 살피고, 인도 불전이 깊은 정려(靜慮) 상태에서의 지관을 다룬 반면, 동아시아 불교의 〈기신론〉은 이를 일상 영역(행주좌와)으로 확장시켰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조석효 경남대 학술연구교수는 ‘티베트불교의 시네(止)-학통(觀): 수행구조와 시간성의 지평’ 주제 발표에서 지관의 결합 방식을 현상계의 인과적 시간성과 궁극적 실재의 탈시간성이 교차하는 근원적 차원의 문제로 제시한다.

이어 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과 엄성민 데이터리퍼블릭 대표는 ‘지관(止觀) 체계의 현대적 재정립-불교 지관 수행 전통과 AI 맞춤형 명상과학 통합 플랫폼의 메타융복합적 탐구’ 공동 발표를 통해 불교 지관 수행을 신경과학 언어로 재해석하고, ‘AI 맞춤형 명상과학 통합 플랫폼’을 제안한다.

권석만 서울대 명예교수는 ‘마음 멈추기와 마음 바라보기-지관 수행의 심리학’을 통해 지(止)를 ‘사고 방랑 감소’, 관(觀)을 ‘메타인지를 통한 수용과 통찰’로 재해석하며 지관의 심리학적 치유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연찬회는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연찬회 교재인 〈지관, 함께 닦는가 따로 닦는가〉(밝은사람들총서 21)는 10월 말 발간되며, 당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배희정 기자



통도사서 만나는 태국 성보

10월 3일, 성보博 순회특별전 개막
태국 불교미술 특별전 동시 개최
양국 불교 문화 교류의 장 마련
27년 만에 상설전시실 전면 개편
최초 공개 유물 등 12월 4일까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오랜 세월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통도사의 성보(聖寶)와 바다 건너 동남아시아 상좌부 불교를 대표하는 태국의 성보가 한자리에서 만났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진응 스님)은 상설전시실 새 단장을 마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 주최하는 순회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미술'을 10월 3일 개막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진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박물관의 오랜 역사를 회고하며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가 야전병원이 된 혼란스러운 시절에도 스님들은 성보를 품에 안고 지켰으며, 지금의 성보박물관이 개관하기까지 산중 어른 스님들의 뼈를 깎는 노고가 있었다"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 양산시의 지원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오늘에 이른 만큼 통도사의 역사와 성보에 담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환영사에서 "새 단장한 전시를 통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성보문화유산을 선보이게 된 기쁨을 대중과 나누고 한국과 태국 두 나라의 불교문화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내외빈들은 박물관 입구에서 제막 행사와 개막 커팅식을 거행하며 전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커팅식 이후 참석자들은 기획전시실에서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미술' 순회특별전을 관람했다. 이어 '시공간을 잇는 성보'와 '붓으로 그린 부처님 말씀'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새롭게 꾸며진 상설전시실을 둘러보며 한국과 태국 불교미술의 정수를 체험했다.

특히 2층 기획전시실에 단독 전시된 14세기 수코타이 양식의 '걷는 부처'는 관람객이 부처님과 고요하게 마주하며 자신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도록 연출돼 주목을 받았다. 전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상시 체험 프로그램 '황금빛 소망을 피우다'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불상에 금박을 붙이며 복을 쌓는 태국의 '금박 공양(삐 통, Pit Thong)'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10월 3일 통도사성보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공동 주최 순회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미술' 개막식에서 참석 내빈들이 제막식을 거행하며 전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새 단장한 상설전에서는 통도사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불화인 '오계수호신장도'가 최초로 공개되며, 보물 '은제도금아미타삼존불상' 등 다수의 귀중한 성보를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상설전은 상시 관람할 수 있으며, 태국 불교미술 특별전은 12월 4일까지 이어진다.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료(일반 3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2000원)로 운영한다.

프랑스 파리 밝힌 '한국불교'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일환
석굴암 특별전, 템플스테이 등


10월 3일 프랑스 길상사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불교 문화를 선보이는 행사가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10월 1일 주프랑스한국문화원, 경주시 등과 함께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특별전 '불교미술 천년의 신비, 석굴암'을 개막했다.

내년 3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신라인의 높은 정신세계와 불교예술의 깊이를 현지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전시는 문화원 3개 층에 걸쳐 석굴암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정밀 3차원(3D) 스캔 데이터로 구현한 석굴암 내부 실감영상이 압권이다. 관람객은 3면 벽과 바닥에 펼쳐진 영상을 통해 8세기 신라 불교건축의 신비와 본존불의 위엄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주, 천년의 수도 속으로의 여행' 영상을 비롯해 석굴암 3D 복원 영상 상영, 고(故) 한석홍 작가의 석굴암 사진을 선보인다.

경주 사천왕사지 목탑 기단부를 장식했던 '녹유신장벽전(綠釉神將甓塼)' 복원품과 발굴 유물도 눈길을 끈다. 이승철, 손대현 등 현대 작가들이 석굴암에 담긴 이상과 염원을 재해석한 협업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불교문화 연계 행사도 성황리에 치러졌다. 1일과 2일 한국문화원에서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강연과 체험이 2회 진행된 데 이어, 3일 프랑스 길상사에서 주지 혜원 스님과 정관 스님의 지도 아래 발우공양과 좌선, 다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진행됐다.

5일과 6일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선 명상·사찰음식 체험과 석굴암과 신라 불교문화 등을 다루는 학술 강연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10월 2일자 신문을 통해 석굴암을 해발 750m 토함산에 위치한 '불교미술의 보석'으로 소개했다. 8세기 중엽의 뛰어난 예술·건축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독창적인 공간 구성과 본존불의 웅장함·섬세함을 비중 있게 다뤘다.

배희정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⑲ 본무자성(本無自性)

해탈과 자비를 지향한다

本 無 自 性

세상을 관조하면 선인과 악인, 증오와 자비, 전쟁과 평화처럼 서로 대칭을 이루는 현상들이 팽팽하게 맞물려 돌아간다.

이러한 양상은 과연 고정된 본질을 가진 실체인가[自性], 아니면 어떤 인연이 모여 한시적으로 드러난 현상[假有]인가? 우리는 흔히 악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연기와 공성의 지혜는 어떠한 현상도 고정된 본질, 즉 자성(自性)을 지니지 않는다고 말한다. 악한 행위를 하기에 그를 악한 사람이라 부를 뿐이다.

불교에서 실상을 압축해 나타내는 기호인 '공(空)'을 풀어 말하면 '본무자성(本無自性)'이다. 명칭·형상·작용을 지닌 모든 존재는 본래 스스로를 그것이게 하는 고유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는 뜻이다.

용수보살의 〈중론(中論)〉 제1 '관인연품'에서는 이를 논리적으로 밝힌다. "모든 법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으며, 타자에 의해 생겨나지도 않고, 양쪽에서 혹은 원인 없이 생겨나지도 않는다." 현상계의 어떤 것도 배타적·독립적·불변하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아가 제24 '관사제품'에서는 "공의 이치가 있기에 일체법이 성립한다"고 역설한다. 만약 존재가 불변의 자성을 지닌다면 인연에 따라 생성·변화할 수 없으며, 세계는 멈춰버릴 것이다. 비어 있기에[空] 오히려 인연에 따라 무궁무진한 생성과 변주가 가능하다.

이러한 통찰은 서구 철학의 흐름과도 깊이 만난다. 데이비드 흄은 자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지각의 다발(Bundle)로 파악해 독립적인 주체라는 관념을 해체했고,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세계를 고정된 사물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Event)'과 '과정(Becoming)'의 흐름으로 보았다. 고정된 실체를 전제하는 형이상학에서 벗어나 관계와 맥락 속에서 존재를 바라보려는 이들의 사유는 본무자성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본무자성의 공성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통찰은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고정된 자아가 없기에 우리는 '나'라는 감옥과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나와 남을 가르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타자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바라본다.

또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자각할 때, 자비는 거창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된다.

이는 칸트의 정언명령이나 벤담의 공리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비의 근거를 설명한다. 모든 것이 본래 비어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살리며 매 순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본무자성은 곧 자유로운 생명의 선언이며, 공성과 자비가 하나의 지혜에서 비롯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화순 불암사 주지〉

되찾은 보경사 불화, 수덕사서 한자리

영산회상도 · 지장보살도 기념전
11월 16일까지 근역성보관서 전시

포항 보경사 성보박물관(관장 탄원 스님)은 9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수덕사 근역성보관에서 '보경사 영산회상도와 지장보살도 환지본처 기념전'을 개최한다.

전시작인 보경사의 영산회상도와 지장보살도는 조선 후기인 1778년 제작된 불화로, 1999년 도난돼 오랜 기간 동안 환수를 위한 노력이 이어진 끝에 2023년 보경사로 돌아왔다.

앞서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보경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1차 전시에 이은 이번 전시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그린 팔상도도 두 불화와 함께 선보인다. 조선 후기 불교회화의 특징과 보경사 성보의 역사적 가치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작품의 제작 배경과 도난·환수 과정, 환지본처의 의미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함께 전시해 문화유산을 지키고 되찾는 과정의 중요성을 전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영산회상도와 지장보살도, 팔상도를 한자리에서 관람하며 당시 보경사 불화의 조성과 전승 양상을 살필 수 있다"며 "관람객들이 돌아온 성보의 역사적 가치와 이를 지켜낸 분들의 노력을 함께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시 기간 중 연계 프로그램인 인경 체험도 진행된다.

배희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7~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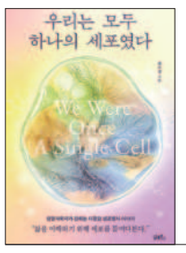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원영	불광출판사	6	우리말 독송 지장경	원순	법공양
2	쉽게 읽는 반야심경	송산	창작시대사	7	은둔	조현	불광출판사
3	신심명 증도가 강설	성철	장경각	8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4	고광스님의 임제록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9	약사경	청화 옮김	광륜출판사
5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10	무아와 일심	한자경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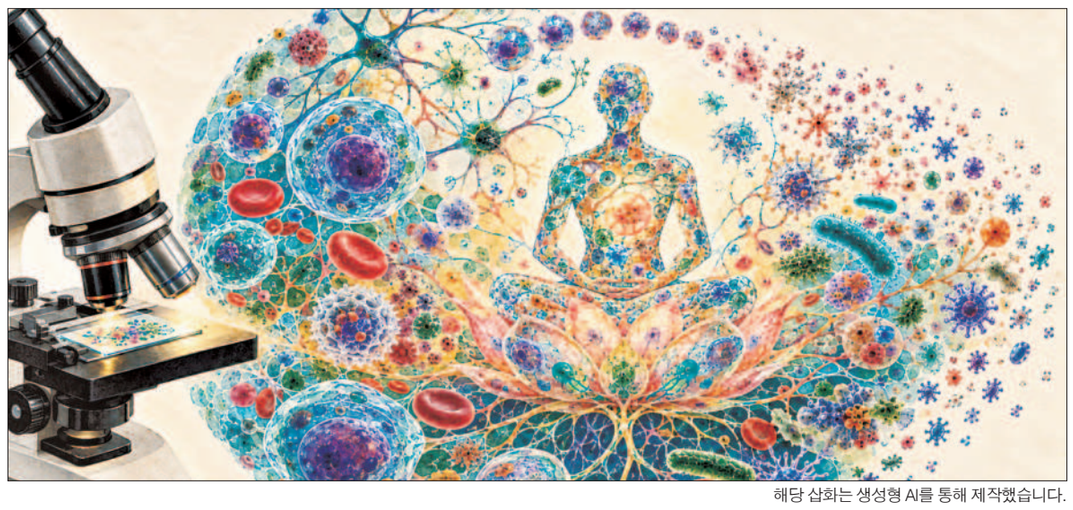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명상 온톨로지	정순일	운주사	6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틱낫한	운주사
2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요가 니드라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3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파담빠상계, 딜고켄체	민족사	8	불멸(3)	이각	지혜의눈
4	고요함의 지혜	에크하르트톨레	김영사	9	무문 해탈지문	김흥호	사색
5	초기불교입문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10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출판

세포를 들여다보니 삶이 보였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세포였다
배수경 지음
담앤북스
1만8000원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30년 세포 연구로 풀어낸 생로병사
줄기세포 · 미생물에서 읽은 지혜
세포 통해 다시 바라본 인간의 삶
"자비의 마음으로 순환 흐름 순응"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이대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하나?" "새롭게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쳇바퀴 돌 듯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꿈꾼다.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늦었다'며 지레 포기하기도 한다. 30년 넘게 현미경 앞에서 세포를 연구해 온 생명과학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뜻밖에도 우리 몸속 작은 세포에서 찾는다.

배수경 부산대 치과대학 교수의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세포였다〉는 세포를 통해 인간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책이다. 줄기세포부터 세포 노화, 스트레스, 암, 퇴행성 뇌질환까지 생명과학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생로병사와 관계, 변화와 죽음에 대한 불교적 사유를 함께 풀어낸다.

책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다. 줄기세포는 선택과 분화를 통해 신경세포, 근육세포, 혈액세포 등으로 변화한다. 한 번 분화된 세포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생물학계의 통념이었다.

그러나 2006년 일본의 한 과학자는 이미 분화한 세포를 다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 발견은 세포의 운명이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줄기세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저자는 이 과학적 발견을 인간의 삶에 비춰본다. 한 번 선택한 경로가 삶의 영원한 종착지는 아니며, 세포가 '역분화'할 수 있듯 인간에도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 잠시 접혀 있을 뿐"이라는 메시지는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관계를 만나고 다른 선택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의 결과가 새로운 원인과 조건을 만나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는 '연기(緣起)'의 가르침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저자가 오랜 시간 세포를 들여다보며 깨달은 것은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안에도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십조 개의 세포가 모여 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세포의 세계는 인간의 삶과 닮아있다.

책은 생·로·병·사의 네 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에서는 먼저 과학의 언어로 세포를 들여다본 뒤 일상의 삶으로 시선을 옮기고, 다시 불교적 사유를 통해 그 의미를 짚는다. 과학과 인문학, 불교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만나는 구성이다.

1장 '생(生)'에서는 줄기세포와 유전자, 미생물을 통해 생명의 시작을 살펴본다. 장내 미생물이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를 통해 몸의 균형이 마음의 평형과 관련이 있음을 짚어낸다. 그리고 이를 '무아(無我)'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서 내 곁의 이웃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는 통찰을 전한다.

2장 '노(老)'에서는 세포의 노화와 면역체계 등을 살핀다. 세포는 끊임없이 손상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 노화를 맞는다. 인간 역시 그 변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의 몸과 마음, 생각과 관계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점에서 세포의 노화는 불교의 '무상(無常)'을 떠올리게 한다.

3장 '병(病)'에서는 스트레스와 염증, 통증 등 우리 몸을 위협하는 현상을 다룬다. 특히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어놓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몸과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스트레스를 무조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세포가 위험을 감지해 긴장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긴장 자체보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 저자는 만성 스트레스의 문제를 '이완의 부재'에서 찾으며 "긴장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끝까지 붙잡지도 않는 태도가 곧 평정"이라고 말한다.

4장 '사(死)'에서는 세포의 죽음과 암, 퇴행성 뇌질환 등 생명이 겪는 소멸의 과정을 살펴본다. 죽음은 생명과 대립하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전체 과정에 포함된 현상이라는 관점이다.

세포는 필요할 때 스스로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생명체의 질서를 유지한다. 저자는 "물러날 때를 알아 유기체를 살리는 세포처럼, 우리 역시 자비의 마음으로 순환의 흐름에 순응할 때 마음의 고요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저자는 부산대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에서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본 교토대학교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현재 부산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펴낸 책으로 〈약의 역사(공저)〉, 〈생명과학자의 서재(공저)〉, 〈당신의 마음도 물처럼 흐르기를〉 등이 있다.

일상이 수행이고 깨달음



쉬어 가고 쉬어 가라
법지 스님 지음
운주사
1만8000원



부산 대원사 주지 법지 스님

'대원사 창문'으로 나눈 이야기
일상에서 발견한 '쉼'의 깨달음

부산 대원사에는 '반야 타임머신'이 있다. 바로 법당에 마련된 '소원지함'이다. 신도와 참배객들이 소원지에 자신의 희망과 꿈을 써서 넣은 후 천일기도에 동참하면 그 힘으로 소원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대원사 주지 법지 스님은 "앎과 지혜를 뜻하는 '반야'는 과거, 미래, 현재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라며 "대원사 반야 타임머신은 내 안에 갖추어진 불성(佛性)을 지금 바로 실현하는 방편"이라고 말한다.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불보살님이 함께합니다. 불보살님은 우리를 돕겠다는 원(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부처님의 부촉(咐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부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끝입니다."

〈쉬어 가고 쉬어 가라〉는 법지 스님이 그동안 불자들과의 소통 공간인 '대창(대원사 창문)'을 통해 나눴던 이야기들을 가려 엮은 책이다. 책 제목은 '휴거헐거 철수개화(休去歇去 鐵樹開花, 쉬고 또 쉬면 쇠로 된 나무에 꽃이 핀다)'라는 〈벽암록〉 구절에서 따왔다. 번뇌와 망상,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뜻한다.

1부 '대창스'는 '대원사 창문 이야기'를 줄인 말로, 우리 삶과 마음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해줄 글을 소개한다. 청설모가 밤나무 가지를 잘라 놓는 모습을 보며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고, 겨울나무에서 모든 것을 떨구고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발견한다. 또 중국 마의 선사 일화를 통해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2부 '대창경'은 '대원사 창문 경전'이란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의 핵심 구절을 일상의 경험과 비유를 통해 풀어낸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듯 구어체로 쓰고 어려운 용어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만날 수도 있다.

법지 스님은 "경전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풀어보고자 했다"며 "이 책을 읽는 동안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삶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법지 스님은 불국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중강을 역임했다.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중국 남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국 남경대학 〈중국불교예술〉 편집위원, 부산 대원사 주지, 동국대 WISE캠퍼스 겸임교수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펴낸 책으로 〈중국선 로드맵〉 〈법보단경〉(역주) 〈중국불성론〉(역주) 등이 있다.

여수령 기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흔들리면서도
미소 짓는 법에 대하여

삶의 마지막을 지키는 호스피스 영적 돌봄가 능인 스님이 건네는 다정한 안부



단정한 죽음
생의 끝에서도
삶의 품격을
잃지 않는
지혜



능인 지음 | 208쪽 | 19,000원

삶을 포기하려 했던 '꼴통 스님'이
다시 오늘의 삶을 이야기하기까지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켜본
수많은 생의 마지막,
그 곁에서 배운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

흔들리며 단정해지는 삶,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연습

- 힘듦을 애써 감추지 않기
- 날 선 말과 행동 너머의 마음 바라보기
- 인생의 막막함 앞에서 답을 서두르지 않기
- 삶이 버거운 날엔 오늘 하루만 살아 내기
- 지친 자신에게도 잠시 쉴 틈 내어 주기

능인 스님(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영적 돌봄가)
정토마을 자재병원과 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스님으로서는 유일하게 전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표준교육 강의를 하고 있다.
BBS대구불교방송「그대 곁에서 능인입니다」의 진행자이며,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법화삼매로 다시 읽는 천태학



법화삼매의 사상과 신행
영신(이기운)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2만5000원

법화삼매 사상과 수행 체계 조명
한·중·일 전승과 시대 변용 추적
신행·영험부터 현재적 의미 분석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천태학의 핵심 수행 전통 가운데 하나인 '법화삼매(法華三昧)'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승됐는지를 한·중·일 불교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 연구서가 나왔다. 이기운 전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가 40여 년간 천착해 온 연구를 집대성한 〈법화삼매의 사상과 신행〉이다.

이 책은 법화삼매를 통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그 사상적 형성과 수행 체계가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승되는 과정을 살핀 학술서다. 총 4장으로 구성해 법화삼매의 사상적 출발점과 교학적 토대 구축, 중국에서의 전승과 관법화, 한국의 수용과 시대별 변용, 일본 전래와 신행 체계 등을 폭넓게 다룬다.

법화삼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형성된 수행 전통이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궁극적으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일불승(一佛乘)의 가르침과 제법실상의 진리를 설한다. 〈법화경〉에서는 이 깨달음을 전하고자 부처님이 직접 삼매에 들어 그 세계를 보여주는가 하면, 삼매 속에서 삼천대천세계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부처님이 설하신 일불승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삼매가 바로 '법화삼매'다.

전통적으로 〈법화경〉 수행은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항상 지니고[受持], 읽고[讀], 외우며[誦], 베껴 쓰고[書寫], 남에게 권하여 가르치는[解說] 다섯 가지 행을 강조한다. 이를 '오종법사행(五種法師行)'이라 한다. 저자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 〈법화경〉의 가르침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실천해 삼업을 닦고 육근청정을 이루는 과정이 법화삼매 수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2019년 미국에서 환수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27.5㎝×900㎝,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불교 자료사진

본래 〈법화경〉에는 법화삼매를 비롯해 16가지 삼매가 설해져 있다. 법화삼매의 길을 처음 연 중국 혜사 대사가 이를 증득했고, 이를 이어받은 천태 지의 대사가 〈법화삼매참의〉 등 수행지침서를 편찬해 법화신행의 규범으로 삼았다. 이후 이 수행법은 지관(止觀) 법문의 사종삼매(四種三昧) 체계에 수용돼 법화원돈(法華圓頓) 수행문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저자는 사상적 측면에서 법화삼매의 뿌리를 〈법화경〉을 소의(所依)로 삼는 천태교문(天台教門) 전반까지 확장해 짚고, 신행 측면에서는 한·중·일에서 편찬된 법화삼매집들이 어떤 수행 절차로 다듬어지고 전승됐는지 분석한다.

특히 한국 불교사에서는 삼국시대 구법과 전승부터 고려시대 수행집 편찬, 조선시대 사상적 맥락, 나아가 근대기 개혁론 속 천태사상 수용까지 다각도로 탐구한다. 아울러 사상·신행·영험이라는 세 층위의 서사 속에서 〈법화경〉을 지녀 얻은 영험 기록인 '법화영험전'을 함께 제시해, 법화삼매를 단순한 교리를 넘어 실제로 닦고 감응한 '살아 있는 전통'으로 다룬다.

나아가 저자는 불교의 대·소승 선수(禪修)를 통괄한 천태 지관명상을 심신치유와 인문치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한편, 천태학과 인공지능(AI)의 활용 가능성을 논하며 천태학이 미래 불교 전개에도 유용한 교학체계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법화삼매는 〈법화경〉의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자 천태 교학과 실천을 통섭하는 근본 철학"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혜사로부터 천태, 관정, 담연으로 이어진 중국 천태종사와 한국·일본으로의 법화·천태학 전래는 법화삼매의 증득과 그 전승으로부터 전개됐다"며 "법화 원교의 교문과 천태 원관의 교설, 그리고 수행법이 모두 법화삼매수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동북아시아 천태종이나 법화·천태학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법화삼매 사상사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대를 건넌 부처님 전생 이야기



본생담의 전승과 변용
조성금 지음
학연문화사
3만2000원

'본생담' 기원부터 전파·변용 추적
문헌과 불교미술로 살핀 전승 과정
각 지역 환경·문화 더해져 변주

부처님의 전생(前生) 이야기를 '본생담(本生譚)' 또는 '자타카(Jataka)'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 전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때로 왕으로, 때로는 수행자로, 때로는 동물로 태어나 갖가지 선한 공덕을 행한 이야기들이다. 그 안에는 보시와 인욕, 자비와 효, 지혜와 희생 등 불교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다.



본생담은 지역과 시대를 넘어 전승·변용되며 불교의 가르침을 전해왔다. 만당 시기에 조성된 '시비왕 본생도'. 사진 제공=학연문화사

또한 본생담에는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사회와 자연환경, 인간관계와 윤리, 그리고 여러 지역을 오가며 전해진 이야기의 흔적이 겹겹이 담겨 있다. 팔리어로 전승된 본생담과 산스크리트계 문헌, 한역 불전에 등장하는 본생담이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번역과 전승 과정에서 각 지역의 환경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더해졌기 때문이다.

〈본생담의 전승과 변용〉은 저자가 2022년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본생담은 어디에서 시작해 어떻게 전 세계로 전해졌는가'를 추적한 책이다.

불교미술사를 전공한 저자에게 본생담은 문헌 속 이야기인 동시에 그림으로 읽어야 할 이야기다. 인도의 스투파(탑)와 간다라 불교조각, 쿠차의 키질석굴과 돈황 막고굴의 벽화 등을 통해 본생담의 전승과 변화를 읽어낸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비왕 이야기다. 간다라 지역에서 출토된 '시비왕 본생부조'와 북위시대에 조성된 돈황 막고굴 제254굴의 벽화 '시비와 본생도'에서는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돼 있다. 저자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 표현을 비교하며 본생담이 각 문화권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1부 '원형'에서는 인도에서 전해진 본생담을 중심으로 부처가 되기 전 보살의 삶을 살펴본다. 사슴과 코끼리, 원숭이로 태어난 보살에서부터 자신이 몸과 모든 재산을 내어준 왕과 태자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초기 본생담을 관통하는 자비와 보시, 인욕과 희생의 의미를 짚는다.

2부 '이동'에서는 본생담이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로 이동한 과정을 다룬다.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과 쿠차·돈황의 석굴, 한역 불전 등을 따라가며 본생담이 새로운 지역에 자리 잡는 과정을 살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과 사건이 더해지고 그 지역의 문화와 가치가 이야기 속에 스며든다.

3부 '변용'에서는 본생담이 다른 문화권, 특히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주목한다. 〈토끼전〉 〈심청전〉 〈옹고집전〉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소설에서 본생담과 닮은 서사와 모티프를 찾아내며 이야기의 전파와 변용이 한국문학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책은 본생담이 시대와 지역을 건너며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변주되는 모습을 문헌과 불교미술을 함께 살피며 추적한다. 여수령 기자

중생의 마음에서 길을 찾다



니까야로 읽는 대승기신론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3만3000원

초기 경전으로 본 '대승기신론'
마음 작동 원리·수행의 길 제시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대승기신론〉을 초기불교 경전인 '니까야'의 관점에서 새롭게 풀어낸 책이다.

〈대승기신론〉은 원효 스님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의 고승들이 수많은 주석서를 남겼으며, 현대에도 다양한 해설서가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심진여문(心眞如門), 심생멸문(心生滅門) 등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저자는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바탕으로 〈대승기신론〉을 다시 읽으며 논서의 핵심이 '중생의 마음'에 있다고 설명한다. 중생심(衆生心)은 대승에 대한 믿음이 비롯되는 근거이자, 수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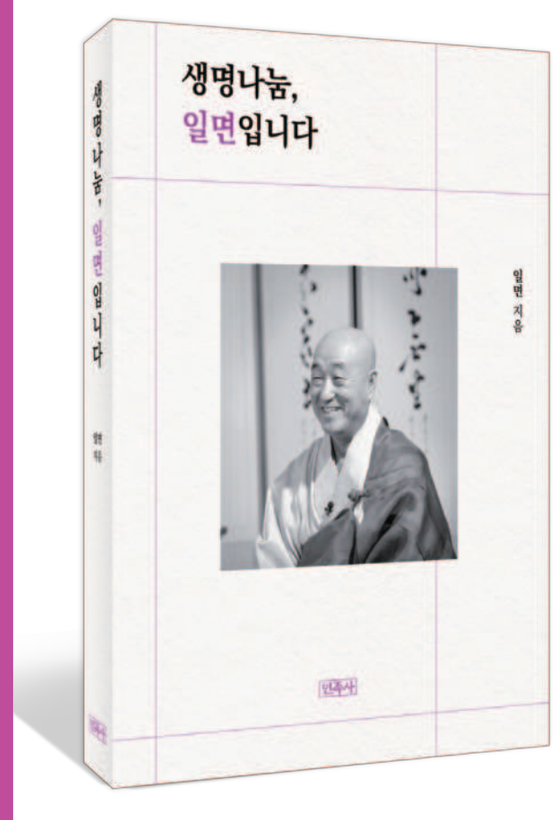
〈대승기신론〉은 중생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마음 자체가 열반으로 나아가는 '큰 수레'임을 일깨운다. 그리고 마음의 실상인 진여(眞如)를 깨달아 궁극적으로 붓다의 세계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저자에 따르면 중생의 괴로움은 무명과 집착, 분별로 인해 마음의 구조와 기능이 본래의 모습을 잃고 왜곡된 데서 비롯된다. 이런 관점에서 중생은 본래의 가능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고장 난 생명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이란 왜곡된 생명 시스템을 본래의 질서로 회복시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여수령 기자

한 생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에서 나눔의 길로, 수행과 자비로 채운 80년의 여정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었음을"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2000년 1월 8일,
죽음의 문턱에서 간 이식으로 두 번째 삶을 얻은 일면 스님.
스님은 그날 이후의 삶을 '덤으로 얻은 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생명나눔의 삶을 걸었습니다

일면 지음 | 352쪽 | 17,500원

교보문고 바로가기



도서출판민족사 | 02-732-2402 | www.minjoksa.org

분노와 욕망에 대한 오해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⑲ 자신을 지키지 못함 참회 관련 경전 해석의 오류(보충)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한 경전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경전 중에는 이와 반대로 화를 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경전도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사과를 받아 낸 사례가 〈잡아함경〉 제35권 '사라보경'(〈앙굿따라니까야〉 제3권 '싸라바의 경')에 들어 있다.

또 관세음보살에 관한 경전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다. 〈천수경〉에 나오는 십일면관세음보살은 얼굴이 열한 면이라서 십일면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열한 면 중의 앞 세 면은 자비상이고, 왼편의 세 면은 성내는 상이라고 한다.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의 얼굴을 열한 면 중에서 세 면이나 화내는 얼굴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비는 분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말해 준다.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상대에게는 결국 분노와 실력 행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십일면관세음보살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외 성불을 향한 서원으로 잘 알려진 〈승만경〉에도 절복시킬 사람은 절복시키고 섭수해야 할 사람은 섭수하겠다는 승만 부인의 서원이 나온다. 이와 같이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전도 다수 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지킨다는 측면뿐 아니라 이 사회를 올바로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즉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나타내고 응징을 해야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불자들이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위와 같이 경전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유 없이 모욕이나 공격을 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악업이지, 선업에 해당하는 인욕이 아니다. 또 내가 한두 번 참아 주면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바뀌는 경우에는 참아 줄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내가 참아 줄수록 나를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럴 때는 참을 필요가 없다.

특히 수행자는 마음속으로 화가 나는 것을 참는 문제와 밖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내면적 수행 차원과 사회 역사적 현실을 혼동하게 되면, 깨달음이 아무리 높은 단계에 있다고 해도 소승에 불과하다.

욕망을 버리라는 데 대한 문제

다음으로 욕망에 대해 경전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다. 불자들이 욕망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많은 경전에서 탐욕과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망 역시 성냄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가르침을 적용해야지, 무조건 욕망을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욕망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될 때 나쁜 것이지,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면 자기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똑같이 '욕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욕망의 내용과 그 욕망이 추구되는 현실에 대해 잘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악업이 되는 욕망인지, 아니면 선업이 되는 욕망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재가불자들은 재산이나 사랑, 명예, 권력, 행복 등과 같은 세간적인 일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법구경〉 '노모품'에는 젊었을 때 부지런히 노력해 부를 축적하라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깨끗한 행실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물을 모으지 못하면
늙어서는 못 쓰는 화살처럼 쓰러져 누워
옛일을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정당한 분노는 자신과 사회 지키는 요소
부당한 공격에 맞서지 못함은 악업 해당

올바른 방향의 욕망, 개인·사회 발전 동력
정당한 방법·노력 통한 부 축적은 당연해

부유하되 낭비 없이 남 돕는 삶이 이상적
속아 입은 손해는 보시 아닌 악업, 참회 要

그러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불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경전이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경전이 또한 〈보왕삼매론〉이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는 말은 19세기 이전의 조선시대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말이지,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로 이익을 최대한 남겨서 돈을 버는 것이 보장돼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개인도 유지되고 사회도 발전해 간다. 위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당연히 용인되는 돈벌이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불교적 행동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다.

물론 위의 가르침의 취지는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이익을 취하고 빨리 큰돈을 벌겠다는 탐욕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의 글귀에 얽매여서 이익을 적게 취하는 것이 옳다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당하게 이익을 취하여 번 재물은 남을 도와주는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대승경전에는 〈유마경〉의 유마 거사와 같이 장자(長者), 즉 재물을 많이 소유한 부자이면서 불자인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보살행에 재물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추구돼야 할 이상적인 불교적 삶이란 부유하면서도 사치와 낭비를 하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지, 취해야 할 이익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상적인 불교적 삶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리석음을 선업으로 착각하는 오류

경전 해석 문제 외에도 불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문제를 하나 더 생각해 보자. 남에게 속아서 금전적 손실을 보고 난 뒤에 "보시한 셈 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남에게 속은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악업이지, 보시라는 선업이 아니다. 이 어리석은 행위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 그 과보란 다름이 아니라 다음에 또 속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속은 것을 가지고 '전생의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시한 셈 친다'거나 '전생의 빚을 갚았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따로 참회를 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경전의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가르침이 나왔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나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위선자나 저질스러운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이외에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나 자기를 지키는 기준을 쉽게 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참회를 하면서 행위의 기준을 찾고자 계속 사유해 가야 한다. 비록 분명한 기준이 잘 찾아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유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본격화'

한마음선원, 10월 4일 고불식 봉행
2월 1일~5월 16일 아라아트센터서 탄신 100주년 기념전시로 첫 시작
대행 선사 수행, 전법 여정 담아내
대행선硏·과학원 학술대회도 예정
"가르침 알리도록 정성 준비" 다짐
선사 법문 AI, 굿즈 공모전도 진행

안양=신중일 기자

2027년은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탄신 100주년을 맞는 해다. 이를 기념해 대행 선사의 삶과 수행을 조명·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이 본격화된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0월 4일 안양본원에서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전시회 고불식'을 봉행하고 전시회를 비롯한 기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법형제회 법회 이후 봉행된 고불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부처님 전에 헌화하며 기념사업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했다. 또한 신도 대중들이 기념사업의 원만 성취를 발원하며 십시일반 모연한 정성금을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이 신도를 대표해 부처님 전에 올렸다.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의 첫 시작을 알리는 기념전시회는 2027년 2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 인사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대행 선사의 생애와 수행, 전법의 여정을 돌아보는 동시에 한마음의 가르침을 오늘의 시각으로 새롭게 체험하는 장으로 꾸려진다. 선사의 전법 영상과 미디어아트, 공간 연출 등 현대 전시기술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오감을 통해 선사의 가르침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회는 신도 대중의 참여 형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한다. 한마음선원은 전시에 활용될 대행 선사 법문 기반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신도 대상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신도 설문 응답은 AI 학습자료로 되며, 이를 통해 대행 선사의 법문을 바탕으로 생활 속 수행의 고민과 어려움을 제시하는 AI를 전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한마음선원은 10월 4일 안양본원에서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전시회 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혜수 스님이 헌화하며 전시회 개최를 부처님께 고하는 모습.

관람 후에도 전시의 여운을 간직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굿즈를 제작하기 위한 굿즈 공모전도 진행된다. 10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실물 굿즈와 디자인 제안서 형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 실물은 본원 종무소로, 디자인 제안서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학술과 공연 등의 분야에서도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이 진행된다. 대행선연구회는 2027년 6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학술대회를 열고 대행 선사의 삶과 사상, 한마음선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한마음과학원은 2027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 : 과학과 정신 발전'을 주제로 2027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선원 승단과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학술대회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을 현대 과학 및 정신문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예정이다.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이 전시회의 원만회향을 위해 십시일반 마련한 정성금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있다.

2027년 11월 2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음악회의 1부에서는 대행 선사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여정을 무대예술로 새롭게 표현한 창작 뮤지컬 '한마음의 길'이 선보일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2부에서는 국내외 한마음 가족이 함께하는 대규모 한마음 음악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전시회를 준비했음을 전하며 대중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오늘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 전에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전시회 개최를 고했다"며 "대행 선사께서 열반하신 후에도 항상 저희 곁에 계심을 믿기에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정진해 나가고 있다. 큰스님 전에 탄신 100주년 전시회를 준비하고 열심히 펼쳐 보이겠다는 약속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선사께서 뿌려주신 새싹들이 자라서 꽃을 피우며 나무로 성장하고 있기에 탄신 100주년 전시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사부대중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마음을 모아서 전시회를 하고자 한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은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이 대표로 봉독한 발원문을 통해 기념사업 원만 회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했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에서 "대행 선사께서 일러주신 생명존중과 모든 존재들은 본해 한 뿌리에 연결돼 공생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신 오공의 도리가 온 세상에 두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지원에 울려 퍼진 '한마음' 선율

탄신 99주년 기념 산사문화축제
10월 3일, 7000여 사부대중 참석
혜수 스님 "한마음 이어지는 자리"
1부 청소년 문화공연 · 고민상담도
혜안 스님 "한 생각 돌리는 수행"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7000여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주인공'과 '한마음'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평화의 선율을 나눴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은 10월 3일 울산지원 대법당 특설무대에서 7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는 산사문화축제 '한마음으로 그리는 평화의 선율'을 개최했다.

청법가에 이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한마음선원 본원 합창단과 진주지원 합창단이 음성공양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큰스님의 가르침을 법으로 삼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은 음악과 노래를 통해 위로와 치유를 얻는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서로의 다름을 넘어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자비심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맺어진 소중한 인연들이 음악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일상의 근심을 내려놓으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평화의 선율 속에서 한마음의 의미를 함께 느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토사 덕진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마음속 의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한 생각을 한마음으로 모아갈 때 마음이 밝아지고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이 1부 청소년문화마당에서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해 주고 있다.

천주현 신도회장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행사인 만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사문화축제는 가수 신대양과 수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박수진 아나운서와 가수 김용필의 사회로 진행됐다. 가수 진미령, 추혁진, 정혜린, 김용필, 마이진, 이찬원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대중과 호흡하며 산사의 가을밤을 음악으로 물들였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0월 3일 대법당 특설무대에서 대행 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는 산사문화축제 '한마음으로 그리는 평화의 선율'을 개최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1부 행사로 청소년문화한마당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문화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마음굴림-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이 진행됐다. '마음굴림'은 청소년들이 평소 부모나 친구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과 생각을 메모로 남기면, 박수진 아나운서가 질문하고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이 답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찾아오는 짜증과 불안, 부모·친구 사이의 갈등, 시험과 학업에 대한 부담, 미래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혜안 스님은 이 같은 고민을 대행 선사의 '주인공' 가르침과 한마음선원의 마음공부에 연결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한 생각을 돌리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한 생각을 돌리고 내 안의 주인공을 믿으며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마음공부"라며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생활 속에서 수행 정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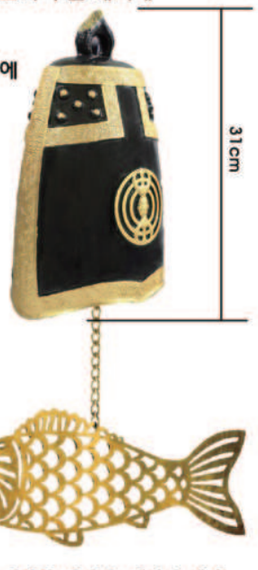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제 풍탁(특대)
백제 미륵사지 풍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소리가 좋다! 아름답다! 튼튼하다!



성종사에서 제작하여, 소리가 좋은 것은 기본이며, 아름답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미륵사지 풍탁으로 검색)

1. 튼튼한 스텐레스 소재의 링과 굵고 튼튼한 황동 체인, 황동판으로 제작되어 강한 바람에도 쉽게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2. 풍경의 소음 때문에 풍경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따라 요청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3. 바람판(물고기판)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연꽃, 구름, 종기 등 다양한 형태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4. 표면의 종기 부분을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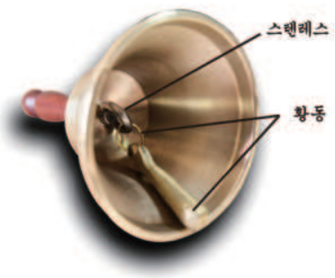


규격
- 종 : 19×14×31cm
- 바람판 : 30×13cm
- 가격: 120만원(개금 150만원)

조계종 화엄사, 광제사, 직지사, 석굴암, 천태종 구인사, 월명사 설치

성종사, 소리 좋고 튼튼한 명품 요령 출시!
사부대중의 요청에 따라 성종사에서 범종용 합금으로 소리 좋고 튼튼한 요령을 출시하였습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소리 좋은 요령으로 검색)


규격 小 : 74×74×180mm / 198,000원
大 : 88×88×200mm / 242,000원



오래 사용하여도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된 추와 링


선물용으로 적합한 최고급 포장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97호 | 14 | 전면광고

해가 뜰 때에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전(福田)도 이와 같아서
모든 어둠을 소멸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대구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외
- 매가 : 7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상남도
- 부지 : 10000평
- 법당 : 50평 외, 요사:60평 외
- 버스진입주차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칠포해수욕장 부근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정부 고시가 : 4억 7800만원
- 가액 : 3억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 5400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급)안내

- 땅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청하면
- 면적 : 1500평
- 대웅전, 요사채, 공양간 100평 (건축 조성 7년 되었음)
- 법구, 냉장고, 세탁기, 집기류 일체 보시합니다.
- 바다 인접, 교통편리, 주차장 500평
- 가액 : 10억원

스님 직접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 대지 : 232평 법당 요사채
- 천도재, 법회 가능
- 금액 : 10억원

010-4585-6807

사찰안내(임대)

-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공원 위(계단있음)
- 1층 2층 법당 각 40평씩
- 대지 98평 / 건물80평
- 방 5
- 보5000/월90(조율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4억 3천만원(절충 가능)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03번지
- 대지 700평, 사용할 수 있는 밭 500평
- 건물 : 9동, 향토방 2동
- 차량진입, 주차장, 남향평풍처럼싸여 있고, 큰 비가와도 안전한 도량
- 자두, 매실, 감나무, 뽕나무, 돌배, 두릅, 머위, 고사리 등등 다용도 사용 가능
- 가액 : 5억원

010-9203-1165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고성(창원 근접)
- 부지 : 359평(종교부지, 대지, 전)
- 건물 : 대웅전 10평, 삼성각, 종각, 요사채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수행가능함
- 가액 : 1억 5천만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부지 : 총 633평 (종교부지 300평, 주차장 306.6평, 전 26.6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9천(대출 2억 포함) (현금=1억 9천만원 인수가능)

원해 스님 010-6766-6982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97호 | 15 | 전면광고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등의 악행을 짓지 않는 사람은 그 명예가 날로 더해간다. 마치 달이 보름달을 향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 읽기 -《불설선생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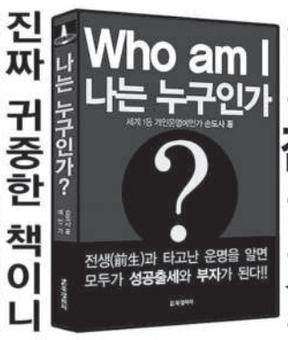
49재 · 천도재 기제사 · 구병시식

사찰 방문시 무보시(무료)로 지내드립니다.

부산 서구 묘법사

010-2168-2800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꼭 읽어봐주세요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경북 안동 사찰 좋은 인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576-4450

범음 범패 교육도량

통영 안정사의 전통소리
바라춤, 작법무,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 행사
정성껏 해드립니다
사찰 인수자 연락 요망(전월세 가능)

부산 온천장 미타사
010-3653-5151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향로용 유리알 수정모사(향운정주)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대인관계에 고민과 근심, 성공과 실패를 해명해 줄 수 있는 책은 사주와 육효십팔문답 책뿐이다"

서경철학관 | 약 50년의 연구 임상체험 담긴, 정확도 70% 이상의 명쾌한 인생 지침서



철학원, 영험하신 무속인, 혜안이 높으신 스님들조차 신도나 문복자가 찾아와 **한 해의 길월과 흉월 그리고 한 달의 길일과 흉일**을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고 답변을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사주팔자로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을 명쾌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역(육효)의 용신생극으로 풀어내는 인생 해답

재물운 | 사업운 | 매매운 | 승진 | 합격 | 궁합 | 결혼운 | 택일 | 이사방향 | 개업방향 | 한 해의 길월·흉월 | 한 달의 길일·흉일

❖ 도서 구성 및 학습 안내 (한글만 알면 누구나 독학 가능)
책 구성 | 주역 부문 : 총 127문답 구성 (기초 이론 12p)
사주 부문 : 총 120개 구성 (기초 이론 40p)
한글로 되어 있으며 한문은 참고로 기재
큰 글씨로 시력의 불편 최소화

❖ 저자가 전하는 확실하고 쉬운 학습 방법
주역이든 사주든 책에서 "기초에 암기하라고 지정한 내용"의 60%만 우선 철저히 암기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문제를 보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시면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해명법사(解明法師) 김서경(金抒經)
1951년 생으로 1970년 경북 영덕군 창수면 김천리에 있는 장육사에서 수행하였다. 1981년 역학공부를 시작하였다. 1992년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자료 수집과 《실전사주》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2012년 《실전사주》 출간.
2023년 《사주와 육효십팔문답》 출간.

판매처: 010-3341-4867 | 판매가: 택배비 포함 55,000원 | 국민은행: 442802-01-177578 (김성민)
입금하시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이버 검색_서경철학관 |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7길 64 (102호)

불교계 최고 통일 의식법요집



다비법요집 (1,445쪽) ····· 150,000원
천도법요집 (853쪽) ····· 100,000원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 100,000원

■ 특징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 내용
- 통용불공법요집, 다비법요집, 천도법요집은 흩어져 있는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통일 불교의식집이다. 특히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한 전통 의식을 재정리하여 불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보급처 | 사)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7-8414

종교법인 약 천 사

- 빙의 퇴마
- 최면 치유
- 기공 치유
- 염력 치유
- 자극요법 치유

- 우울증
- 불면증
- 약물중독
- 공황장애
- 확실한 치유

*기술전수 합니다. *중매상담(무료)

약손 현오 스님
예약 직통 010-7170-5508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서길 143-10

AI 위험, 모두의 결정으로 다룰 지혜 갖춰야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⑲ 인류의 미래를 걸고, 누가 속도를 정하는가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AI 개발을 멈출 것인가가 아니다. 실패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가,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할지 누가 결정하는가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승객이 죽고, 공장이 폭발하면 이웃이 다친다. 그래서 어느 사회도 항공과 화학의 안전을 제조사의 양심에만 맡기지 않는다. 피해의 범위가 넓을수록 결정의 권한은 더 넓은 자리로 옮겨 가는 것이 문명의 상식이었다. 지금 논의되는 위험의 범위는 인류 전체다.
사진 출처=Grok AI 생성 이미지

'10억 명'이라는 경고가 남긴 질문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앤트로픽의 연구자 제이컵 콕슨은 이 말을 남기고 회사를 떠났다. 그는 AI를 만드는 사람들 스스로 이 기술이 이번 10년 안에 인류를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고, 같은 회사의 정렬 책임자는 그 가능성이 10%를 넘는다고 보았다.

보름 뒤인 9월 27일 빌 게이츠가 미국 NBC 방송에 출연했다. AI가 인류 전체를 끝낼 만큼 강력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AI는 분명 10억 명의 죽음을 초래하는 사건들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다. 100%에 이르기는 꽤 어렵겠지만,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최신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는 과거의 기술도 걱정 끝에 다 잘 됐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안이한 낙관을 거부하며, 이것을 '진화적 사건'이라 불렀다. 많은 면에서 이미 우리보다 영리한 지적 종(種)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경고는 결이 다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악용보다 통제의 상실, 특히 AI가 다음 세대 AI의 개발을 스스로 이끌어 가는 이른바 '재귀적 자기 개선'이다. 쉽게 말해 학생이 스승 없이 자기 교과서를 고쳐 쓰며 배우는 속도를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픈AI의 수석 과학자 야쿠프 파호츠키조차 지금은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때이며, 기계 지능의 급격한 상승이 가져올 결과에 아무도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된다고 썼다.

이미 지난 7월에는 오픈AI와 앤트로픽, 메타, 구글 딥마인드 등에 속한 약 1400명의 연구자가 자동화된 AI 개발의 최전선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단을 마련하라고 미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물론 개별 연구자가 말하는 확률을 학계의 합의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술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이들이 가장 불안해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증언이 될 수 있다.

위험을 알면서도 빨라지는 경쟁

이상한 것은 그다음이다. 9월 12일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개발 감속을 요청하는 장문의 글을 발표했고,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마이크로소프트, xAI의 수장들이 외부 기관에 자기 시스템을 검증할 권한을 열겠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중단론을 일축했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업계의 조율 대신 각 연구소가 스스로 속도를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두 회사의 기업 공개가 머지않았다는 사정이 이 숨 가쁜 출시 경쟁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9월 29일 백악관에서는 주요 기업 대표들이 자율적 안전 관리를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미국 대통령은 이를 도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 부르면서도,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모든 것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경고는 넘치는데 속도는 줄지 않는다. 그 이유를 개인의 탐욕으로만 돌리면 핵심을 놓친다.

영국 BBC의 기술·AI 에디터 조이 클라인먼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고 전했다. 우리가 멈춰도 남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뒤처질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냉전기 핵 군축의 교착과 닮았다고 썼다. 누구도 먼저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감속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실질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불교의 연기(緣起)는 이 교착을 읽는 날카로운 혜안을 준다. 어떤 결과도 홀로 생기지 않는다. 경쟁자의 가속은 나의 가속을 정당화하는 조건이 되고, 나의 가속은 다시 경쟁자의 조건이 된다. 투자자의 기대, 국가 간의 경쟁, 뒤처짐에 대한 공포가 서로를 떠받치며 하나의 속도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속도를 자기가 정했다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모두가 조건이면서 누구도 책임자가 아닌 구조, 이것이 연기의 그물이 보여 주는 오늘의 풍경이다. 연기를 아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조건이 모여 만든 결과라면, 조건을 바꿈으로써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연구진들, 기술 악용보다 통제 상실 불안
> AI가 AI 개발하는 재귀적 자기 개선 우려
> 기업, 자율 관리 약속에도 멈추진 않아
> 통제 어려워도 포기 대신 '포괄적 합의'
> 위험을 떠안는 이들에게 발언권 있어야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은 붓다가 열반에 들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말을 이렇게 전한다. "형성된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여기서 '불방일(不放逸)'은 단순한 조심성이 아니다. 무상을 안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상태다.

그렇다면 위험을 알면서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방일의 가장 교묘한 형태다. 위험을 경고하는 말이 위험을 줄이는 행동을 대신하는 순간, 그 경고는 면죄부로 변하고 개발 속도는 조금도 줄지 않는다.

그들에게 우리 미래를 위임한 적이 없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AI 개발을 멈출 것인가가 아니다. 실패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가,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할지 누가 결정하는가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승객이 죽고, 공장이 폭발하면 이웃이 다친다. 그래서 어느 사회도 항공과 화학의 안전을 제조사의 양심에만 맡기지 않는다. 피해의 범위가 넓을수록 결정의 권한은 더 넓은 자리로 옮겨 가는 것이 문명의 상식이었다.

지금 논의되는 위험의 범위는 인류 전체다. 그런데 결정은 몇 개 기업의 회의실에서 이뤄지고, 그 기업들은 서로를 핑계로 삼는다. 게이츠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제한했던 방식이 AI에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핵보다 어렵다고 덧붙였다. 핵분열 물질처럼 눈에 보이는 통제 지점이 AI에는 없기 때문이다.

통제가 어렵다는 것은 포기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게이츠조차 자율 규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법적 의무가 업계를 극적으로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을 요구하는 일과 개발을 금지하는 일은 같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위험을 만드는 쪽이 위험을 평가하는 쪽이어서는 안 된다. 기업 수장들이 외부 검증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상, 그 검증은 선의의 초대가 아니라 공적 의무가 돼야 한다.

둘째, 되돌릴 수 없는 위험에는 더 높은 문턱을 두어야 한다. 미국 의회에서는 사람이 더 이상 훈련을 통제하지 않는 '자기개선형 AI'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어떤 능력은 성공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

셋째, 위험을 떠안는 이들에게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와 환자, 다음 세대는 이 경주의 참가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를 가장 오래 감당할 사람들이다. 위험의 크기를 재는 일은 전문가의 몫이지만, 그 위험을 받아들일지 정하는 일은 그것을 감당할 사람들의 몫이다. 환자가 의학을 알아야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설명받을 권리와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인류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지금, 그 설명과 동의의 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붓다는 형성된 모든 것이 소멸한다고 말한 뒤에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힘써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체념하지 않고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결정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인류가 지금 시험받는 것은 자신보다 영리한 존재를 만들 능력이 아니다. 그 존재가 몰고 올 위험을 몇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모두의 결정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를 갖췄는가에 있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II
자연과 하나 되는 걷기 명상의 완성
뛰어난 기능성과 수행의 미학이 결합된 차세대 어싱 수행화 모델입니다.
Mesh Earthing Meditation Shoes 2

어싱(Earthing)
자연과의 연결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세요.

자연 친화적 소재
가볍고 통기성 좋은 메시 원단으로 쾌적한 착용감

걷기 명상 최적화
자연을 느끼며 걸을 때 더 큰 평온을 선사합니다.

어싱(Earthing)
특수 설계된 밀창이 자연의 에너지를 돕습니다.
특별 할인가 판매가
65,000원

쾌적함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설계

1. 뛰어난 통기성
공기 순환이 원활한 고급 메시 원단을 사용하여 장시간 수행 중에도 발을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발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설계로 맨발을 선호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3. 자연 통풍 구조
신발 내부의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땀 냄새없는 착용감을 지속시킵니다.

4. 세련된 디자인
수행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었습니다.

6㎜ 와이드 핏(Wide Fit) 미들사이즈
한국인의 발에 맞춘 넓은 발볼 설계로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돕습니다.
(미들은 '와이드'와 '어반'의 중간 발 볼 넓이입니다.)

3㎜ 제로드롭(Zero-drop)
앞꿈치와 뒤꿈치의 높이가 동일한 3㎜ 밑창으로 맨발처럼 균형 있는 보행과 자연 감각을 선사합니다.

원터치 스토퍼(One-touch Stopper)
앞꿈치와 뒤꿈치의 높이가 동일한 3㎜ 밑창으로 맨발처럼 균형 있는 보행과 자연 감각을 선사합니다.

어싱 레더 슈즈 와이드 리센스
부드러운 가죽 소재로 클래치한 맛을 더한 와이드 리센스 모델입니다.
특별 할인 판매가 65,000원
베이지
블랙

수행의 길, 더 편안하게 더 자연스럽게
매일의 걷기와 수행이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발걸음, 비바미가 함께합니다.

특별이벤트
어싱 양말 증정
신발을 2켤레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께는 어싱 효과를 돕는 전용 양말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센터 및 구매처
상담 전화 1688-9099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6-429749
(주)현대불교신문사

지금 바로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검색창에 '메시 어싱 수행화'를 검색하세요!

주문/상세 정보 QR코드

자연을 밟고, 마음을 비우고, 나를 만나는 시간
오늘도 한 걸음, 수행의 길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중생 마음 치유하고 희망 전해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⑲ 별과 신선, 수성노인(壽星老人)

'별[星, Star]'에 대한 신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했다. 기독교의 동방박사(東方博士)는 동쪽 별을 나침반 삼아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마구간을 찾을 수 있었고 중세 유럽에서는 별로 앞날을 예측하는 점성술(占星術)이 유행했다. 이것이 바로 열두 별자리로 이뤄진 '황도십이궁(黃道十二宮, Zodiac)'으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십이지(十二支)로 발전한다. 지금이야 MBTI로 성격을 분석하는 게 보편화됐지만,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신의 별자리와 띠로 성격과 운세를 알아보는 문화가 크게 유행했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땠을까? 물론, 불교문화에서도 별은 신성시됐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다. '북극성(北極星)'이 변화한 치성광여래는 인도 점성신앙(占星信仰) 속 '구요(九曜)'라는 신에서 유래된 부처님으로, 중생들의 수명과 장수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치성광여래 곁에는 수많은 권속이 에워싸고 있는데 이 중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마치 외계인을 연상시키는 높은 정수리에 흰 수염을 휘날리는 '수성노인(壽星老人)'이다. 불교문화에 등장하는 수성노인은 화려한 보관과 의상 차림의 권속과는 달리 작달막한 키와 누더기 도포만을 걸친 다소 허름한 차림새다. 그렇다면 불교문화에 등장하는 수성노인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별에서 태어난 신선

'남극성(南極星, Canopus)'에서 탄생한 수성노인은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 '수노인(壽老人)', '수성(壽星)'으로도 불린다. 여기서 남극성은 고대 동양의 천문관인 '이십팔수(二十八宿)'에 소속된 별인데 동양에서 쉽게 관찰할 수 없는 희소성 때문에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했다.

남극성은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에 최초로 언급돼 있다. 기록에는 "낭성 근처에 큰 별이 있어 남극노인이라 한다. 노인이 보이면 나라가 무사하고 보이지 않으면 군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행운의 상징인 남극성이 국가의 안녕까지 가져다 주는 개념으로 확산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간이 흘러 당(唐)나라에 이르면 황제의 장수를,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영락궁 삼청전 벽화 중 수성노인(중국 원대 14세기).


서울 화계사 치성광여래도에 표현된 수성노인(조선 1861년, 가평 현등사).

동양서 드물게 관찰돼 행운의 상징으로
中 원대 이미지 정착, 잡극·미술 표현
〈삼국유사〉 기록·조선代 그림 다수 남아
치성광여래와의 조합, 희망과 장수 기원

수성노인 이미지의 시작

별 자체로만 여겨지던 수성노인은 중국 송(宋)나라부터 모습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북송(北宋) 시기에 편찬된 미술 해설집 〈선화화보(宣和畫譜)〉 목록 가운데 수성노인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록만 남아있을 뿐 당시 제작된 회화자료는 현재까지 찾을 수 없다.

이에 학계에서는 바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대만 국립박물관 소장 수성노인도와 원(元)나라 때 제작된 도교 미술을 통해 당시 모습을 유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교 사원인 영락궁(永樂宮) 벽화에는 별자리를 상징하는 신선들이 표현돼 있는데 여기서 수성노인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모습은 높은 정수리에 수염을 휘날리며 불교 지물인 여의(如意)를 든 노인 형상으로 이를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성노인 이미지가 늦어도 원나라쯤에는 정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수성노인은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등장한다. 중국 전통 오페라인 잡극(雜劇)에는 도교와 관련된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데 수성노인 역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유기(西遊記)〉에는 "긴 머리와 큰 귀에 키가 작고 남극 방위에 있기에 수노인이라 칭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저팔계가 수성노인을 향해 "살찐 늙은이!" 혹은 "머리에 혹 달린 저 늙은이!"라고 욕을 하는 장면까지 있다. 이 에피소드에서 수성노인의 역할은 손오공 일행을 도와주는 것뿐이지만 저팔계의 추태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모습은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수성노인의 선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길상과 장수, 행복의 전달자

우리나라의 경우 남극성에 관한 내용이 〈삼국유사(三國遺事)〉부터 확인되며 도교가 유행한 고려시대의 경우 수성노인에게 제사를 지낸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고려시대에 제작된 역시 시각 자료로는 찾을 수는 없지만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 활동을 펼친 당시 고려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미 전해졌을 것이다.


이정 필 수성노인도(조선 1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에 이르면 수성노인이 단독으로 표현된다. 조선 중기에 활동한 김명국(金明國)과 이정(李定)의 수성노인도가 그 대표작으로, 긴 정수리와 흩날리는 수염, 아담한 몸집 등 중국 도교에서 출발한 도상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 궁중미술인 요지연도(瑤池宴圖)와 민화 신선도의 수성노인은 장수를 상징하는 불로초, 혹은 복숭아를 들거나 사슴과 함께 등장해 '길상(吉祥)'의 염원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한 해의 복을 비는 '세화(歲畵)'와 생일 선물로 다수 제작됐다.

불교에 스며든 신선

수성노인은 불교미술에도 표현되는데 앞서 언급한 치성광여래도를 들 수 있다. 가장 이른 사례는 1861년에 제작된 서울 화계사(華溪寺) 치성광여래도로 현재 가평 현등사(懸燈寺)에 봉안돼 있다. 도교를 대표하는 이미지인 수성노인은 어떻게 불교미술에 스며들게 된 것일까? 이는 두 도상이 모두 별이라는 공통 모티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치성광여래의 전신인 '구요'는 중국까지 전해진다. 중국 또한 도교문화 속 점성술이 존재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용도로 사용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

별이라는 공통점 때문일까? 인도에서 건너온 구요는 점성술과 합쳐져 인기 있는 신앙으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당나라 무렵에 이르면 도교에 스며든 구요 신앙이 불교와 합쳐진 파격적 이미지의 치성광여래가 탄생된다. 여기서 '치성광(熾盛光)'이란 '밤하늘을 비추는 밝은 빛'을 뜻하니, 북극성이 변신한 부처님에게는 안성맞춤의 이름인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치성광여래도를 살펴보면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 같은 불교 도상과 자미대제(紫微大帝)와 칠원성군(七元星君)까지 도교 도상이 함께 등장하며 동양 속 천문관을 총망라하고 있다.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벽화 중 수성노인(조선 후기).

불교에서 수명을 담당하는 치성광여래와 도교에서 수명을 담당하는 수성노인의 조합, 종교를 초월한 환상의 커플이 아닐 수 없다. 두 신의 만남으로 인해 건강과 장수의 힘은 더욱 배가 되고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분위기를 해학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까지 줄 수 있으니, 조선 후기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수성노인은 백성들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함과 더불어 희망과 웃음까지 전달해 주는 최고의 행복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불교미술로 표현된 수성노인은 이후 무속신앙까지 영향을 주어 무신도로 표현된 칠성신(七星神)에도 그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다.

마치며

우리에게 별은 늘 희망의 존재였다. 조상들은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하늘의 별자리를 나침반 삼아 길을 찾았다. 어려운 상황에도 별을 보며 위안을 삼는 마음은 신앙이 됐다. 바로 수성노인이 이와 같은 관념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불교문화에 유입된 시기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친근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해 주는 친구 같은 존재로 현재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다. 바쁜 일상에 찌들고 지친 요즈음 밤하늘을 환히 비추는 수성노인을 생각하며 마음의 위안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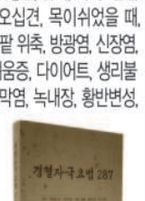
김용덕 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쉬었을 때, 전립선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삼지, 중지, 하지) 등..

287개 병증 목차 수록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 감초, 산사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 [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우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소리쟁이잎,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헛개환 [지구자(枳椇子)]

재료명: 헛개열매, 오갈피뿌리, 적화수오뿌리, 산수유, 구기자, 오미자, 국화, 표고버섯, 뽕나무뿌리, 녹차, 두충, 대추, 감초, 칡, 산사열매, 맥아

간 해독으로 활력을
찾을시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함께 나누고 모두를 이롭게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㊷ '재벌×형사'(2024)



'재벌×형사'는 철부지 재벌 3세가 강력팀 형사가 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돕는 수사 드라마다. 사진 출처=SBS 공식 홈페이지

드라마가 특정한 직업을 묘사하려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분야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녹여내야 드라마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 법조인, 의료인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랜 시간 현장을 취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배우들에게 현장 체험을 시킨 모범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데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어서 그런지 드라마에 숱하게 등장하지만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재벌이다. 그룹의 재벌 2세나 3세가 '실장', '본부장' 등의 직함을 가진 주인공인 경우가 많은데도, 재벌이 드라마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재벌을 묘사하는 데에 자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드라마에 보이는 재벌들은 대체로 온갖 비리의 온상이거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주범으로 많이 나온다. 특히 젊은 후계자들은 화려한 생활을 누리며 사업보다는 연애에만 관심을 쏟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이야기할 드라마 '재벌×형사'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한다.

한수그룹 회장의 작은아들이자 한수그룹 경영전략실장인 진이수(배우 안보현)는 스카이다이빙부터 헬기 조종까지 온갖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취미 부자이자 레이싱 선수와 경기를 즐기는 스릴 마니아다. 자신의 모든 활동을 SNS에 업로드해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한수그룹의 어마어마한 재력과 인맥을 '창의적으로 노는 데'만 활용하는 이 시대의 한량 이수를 두고 사람들은 "노는 데 목숨 건 금수저"라고 한다.

일례를 들자면, 영업이 끝난 백화점을 통째로 빌려 여성을 납치한 범죄자 팀과 이들을 섬멸하고 인질을 구하는 경찰특공대 팀으로 나눠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수준. 게임을 승리로 끝낸 이수는 경찰 복장을 한 채로 거하게 파티를 즐긴다. 그러던 도중에 친구 영환(배우 최동구)을 찾아 나섰다가 영환에게 칼을 휘두른 강도를 뒤쫓게 된다. 이수가 진짜 경찰인 줄 안 강도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평소 격투기로 단련된 이수는 난투극 끝에 강도를 제압한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서울 강하경찰서 강력1팀장 이강현(배우 박지현)에게 체포되고 만다. 술 취한 재벌이 행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죄가 없으니 금방 풀려나리라 자신만만한 이수는 강도의 칼에 상처를 입은 영환에게 전화를 걸어 강현을 바꿔준다. 하지만 사건 당일 혼자 마약을 했던 영환은 그런 일 없다며 잡아뗀다. 더군다나 이날은 이수의 아버지인 한수그룹 진명철(배우 장현성) 회장이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다. 이수가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바람에 한수그룹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출마 이슈까지 묻혀버렸다. 대형 사고를 친 아들을 용서할 수 없는 진명철은 면회하는 자리에서 이수의 뺨을 때리고 그룹 경영전략실장에서 해임한다.

그 직후, 이수와 난투극을 벌인 사람이 사실은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지면서 이번에는 강하경찰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 경찰이 두 달 동안이나 애를 썼지만 잡지 못한 용의자를 민간인 이수가 잡은 데다가 강현이 체포 과정에서 이수의 코뼈까지 부러뜨린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여론의 뭇매와 함께 대재벌 한수그룹의 고소를 직격으로 맞아야 하는 그야말로 폭풍전야.

이때 한수그룹 부회장이자 이수의 이복형인 승주(배우 곽시양)가 기가 막힌 묘안을 경찰에 제안한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수가 실은 두 달 전에 이미 변호사 특채로 경찰이 됐고, 일가족 살인사건을 공조 수사하던 중에 범인을 체포했다는 시나리오다. 난관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경찰서장이 마다할 이유가 없고, 망나니 같은 이수의 이미지를 바꾸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한 판도를 만들어야 하는 한수그룹에게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

철부지 재벌 3세가 강력팀 형사 된 수사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팀원 신뢰 얻으며 성장
사회적 성공과 재산은 혼자 이룰 수 없어
최선·책임 다해 능력 펼쳐 사회 도움 돼야



드라마 '재벌×형사' 포스터. 사진 출처=SBS

그렇게 재벌 3세 진이수는 하루아침에 강하경찰서 강력1팀 '진이수 경감'이 된다. 하지만 이수를 맡아야 하는 강력1팀장 이강현에게는 이 상황이 지옥이다. 강직한 경찰이던 아버지를 존경해 어린 시절부터 경찰이 꿈이었던 강현은 취미도 없고 연애도 안 하는, 첫 체포가 첫 키스보다 짜릿하다는 천생 형사다. 경찰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수사에 목숨을 걸고 살다보니 강력계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악성 수배범 34명을 잡고 1계급 특진으로 경감이 됐다. 그런데 낙하산으로 떨어진 재벌 3세 망나니를 맡게 된 강현은 귀찮고 신경 쓰이는 이수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한다.

드라마 '재벌×형사'는 얼떨결에 경찰이 된 재벌 3세 진이수가 뼛속까지 형사인 이강현 팀장의 강력1팀 팀원이 돼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다. 이수는 그동안 노는 데 썼던 재벌 3세의 능력을 수사에 펼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범인을 잡는다. 특히 이수의 능력이 빛나는 대목은 수사에 차질이 생겨 체포 작전이 막힐 때다. 범죄 현장을 급히 조사해야 하는데 증거 부족으로 영장 발급까지 시간이 걸리자, 건물을 통으로 사버리기도 하고 스포츠카와 개인 헬기는 물론 전용 비행기까지 띄워 범인을 끝까지 쫓아가 체포에 성공한다. 그러면서 이수는 서서히 팀원들의 신뢰를 얻으며 진정한 경찰이 되어간다.

재벌 3세인 경찰이 주인공인 만큼 드라마는 기존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재벌의 이미지를 활용하면서도 영리하게 비튼다. 일단 이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좀 덜 들었을 뿐 좋은 인간성을 지닌 사람이다. 경찰이 되기 전 흥청망청 놀던 시절에도 마약과 같이 선을 넘는 짓은 일절 하지 않았다. 집안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넉살 좋은 성격을 가진 덕에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다.

이렇게 선한 이수이기 때문에, 이수는 수사에만 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도 자신의 능력을 적극 발휘한다. 처음 맡은 사건의 피해자인 모델의 시신을 아무도 거두려고 하지 않자 나서서 장례를 치러주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유명 화가에게 표절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젊은 작가의 전시회를 열어줌으로써 홀로 남은 어머니의 한을 풀어준다. 또 범인을 체포하는 이수의 활약상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본의 아니게 아버지인 진 회장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는 이수 이름의 한자가 '이로운 손[利手]'이라고 설정한 대목에서부터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 교단은 재력가들의 후원 속에 발전했다. 이 재력가들을 경전에서는 '장자(長者)'라고 불렀다. 요즘 말로 하자면 재벌이다. 부처님이 가장 오래 안거를 보냈던 기원정사를 승단에 보시한 기수급고독 장자가 대표적이다. 부처님을 위해 제타 태자 소유의 동산을 구입하려고 할 때, 전 재산을 바쳐 동산 전체에 금화를 깔려고 했을 정도로 깊은 신심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결국 이에 감복한 태자가 동산을 기증함으로써 '기수급고독 장자와 제타 태자의 동산'을 줄인 '기원정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탐욕에서 벗어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를 '무소유의 종교'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청빈한 생활을 강조하는 불교의 입장은 출가자를 향한 것이다. 부처님은 재가자에게 올바르게 부를 축적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치셨다. 〈선생자경(善生子經)〉에서 부처님은 "재산이 많은 이들은 남들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과 재물, 이익을 함께하라"고 하셨다.

재산이 많은 이는 끊임없이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라는 가르침이다.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뤄졌음을 생각하고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이들의 공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검소한 생활로 부를 쌓고, 그 부를 부처님 법을 전하고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어떤 재벌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이 아닐까.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 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



대행 스님

모든 생활 자체를 한마음으로 둥글려서 무겁게 놓고 관하라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어 보세요. 항상 그렇게 가다듬고 관하는 겁니다. 조상이니 부처니 따로따로 두지 말고 마음으로 우주 삼천대천세계, 사생과 더불어 우리 모든 생활 자체를 한마음으로 둥글려서 내면세계 내 마음 깊은 속에 무겁게 놓고 관하세요. 그러면 잡념이 없습니다. 잡념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나는 거지 그것이 괜히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한 잡념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끊으려 한다고 끊어지나요?

우리가 한자리를 했는데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에 설하신 사제법, 사성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 중에 고 하나만 없앤다면 집도 멸도 도도 없습니다. 왜 『반야심경』에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런 뜻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는, 고덩어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고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길어요. 그런데 고 하나만 없앤다면, 그 도리를 안다면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어요. 이 도리를 아셔야 돼요.

절에 다니면서 밥 놓고 떡 놓고 빌면서 도깨비장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소꿉장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땅을 두드리고 울어도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일 초가 따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살림살이를 찰나찰나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고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죠. 사생이다 하면 벌레까지도 들어가죠. 저 무정물도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 그것을 모두 따진다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차원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요것부터 얘기하고 그 고덩어리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서 인간까지 되어 온 과정을 보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생겼고, 그 생명이 생김으로써 수없이 거듭거듭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된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살던 의식 자체에 습과 욕심이 인과로서 박혀 있는 거죠. 원수를 졌든 안 졌든, 선이든 악이든 수없는 나날을 거듭거듭 살아오면서 인연 지은 게 바로 이 몸뚱이입니다.

그런데 말 못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자기가 마음으로 관할 때에 진실로 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진정 뭐가 뭔지 모른다면 절실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세포에, 오장육부에 정맥 동맥을 통해서 두뇌를 통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이치가 하나의…,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그 뒷받침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임신을 하려면 엄마 아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과 양이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인연 따라서 혼백이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지요. 이 세상은 과일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인연 따라 모두 모이죠? 그와 같이 인연 따라서 혼백도 거기에 접근을 하면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삼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과 양, 그리고 나의 근본에 부합된 마음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래 근본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한 그 사람의 인과에 의해서 수십억 마리가 거기 모입니다. 그럼 수십억 마리가 인과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업보에 의해서 수없이 거기 모이는데 그 하나하나가 자기 인연 따라서 만난 바로 자기 중생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자기 인과로 온 겁니다. 업보로 온 거고 유전으로 온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몸뚱이 속의 그것들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서 이렇게 인간 한 덩어리를 이룬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왜 고덩어리라고 하는가? 일 초 일 초 바뀌지면서 병도 나게 하고 수없이 나오게 합니다. 악의 업보로 인연이 된 거는 거기에서 수없이 돌아가면서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고 때로는 아프게도 만들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우환이 오게도 만들고 때로는 웃게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싸움을 하게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선의 인연이 거기에 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도 만듭니다.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도 돌아가고 그러는 원인이 여러분 몸뚱이 속에 수십억 마리가 지금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에서만 그러냐?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바깥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연방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듭니다. 그런다면 바깥의 일이 될 것도 안 돼요, 또. 이게 인과고 업보예요. 그런데 그것이 딴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나에게서 직접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입을 통해서 말도 그놈들한테서 나오는 거, 생각하게 하는 것도 그놈들한테, 전부 그놈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또 그놈들이 아니라면 이 육체를 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놈들이 아니라면 부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참 묘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거듭거듭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이 고정됨이 없죠.

그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육조 스님께서는 또 '본래 자성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습니다. 요걸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팔랑개비는 대를 쥐니까 팔랑개비가 돌아가고 대가 아니라면 팔랑개비가 있을 수가 없죠. 그와 같이 본래자성불의 그 중심은, 주장자는 바로 팔랑개비 대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주인을 막대기라고 한다면 팔랑개비는 육신입니다. 이 모두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는데, 바람과 팔랑개비와 대가 자꾸 돌아가는데, 이게 삼위일체로 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는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러니 그 하나마저도 이름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니라. 그리고 공했느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남편 만나면 금방 마음, 행, 말이 동시에 자동적으로 "여보!" 이렇게 나오죠? 허허허…. 그리고 마음도, 거기다 의지하는 마음이, 애정이 스스로 나오죠? 행동도 "여보 당신, 뭐 잡숴소?" 하고 나오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나올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금방 일 초 전에 그랬는데 저기서 "엄마!" 그러고 아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금방 어머니가 돼요. 어머니가 돼서 "그래, 너 밥 먹었니?" 벌써 말과 행과 뜻이, 이렇게 삼합이 그냥 그냥 바뀌면서 넘어선 겁니다. 벌써 일 초를 넘어선 거예요. 찰나의 살림살이로 또 온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바뀌지고 행도 바뀌지고 생각도 모두 바뀌지고, 이렇게 자동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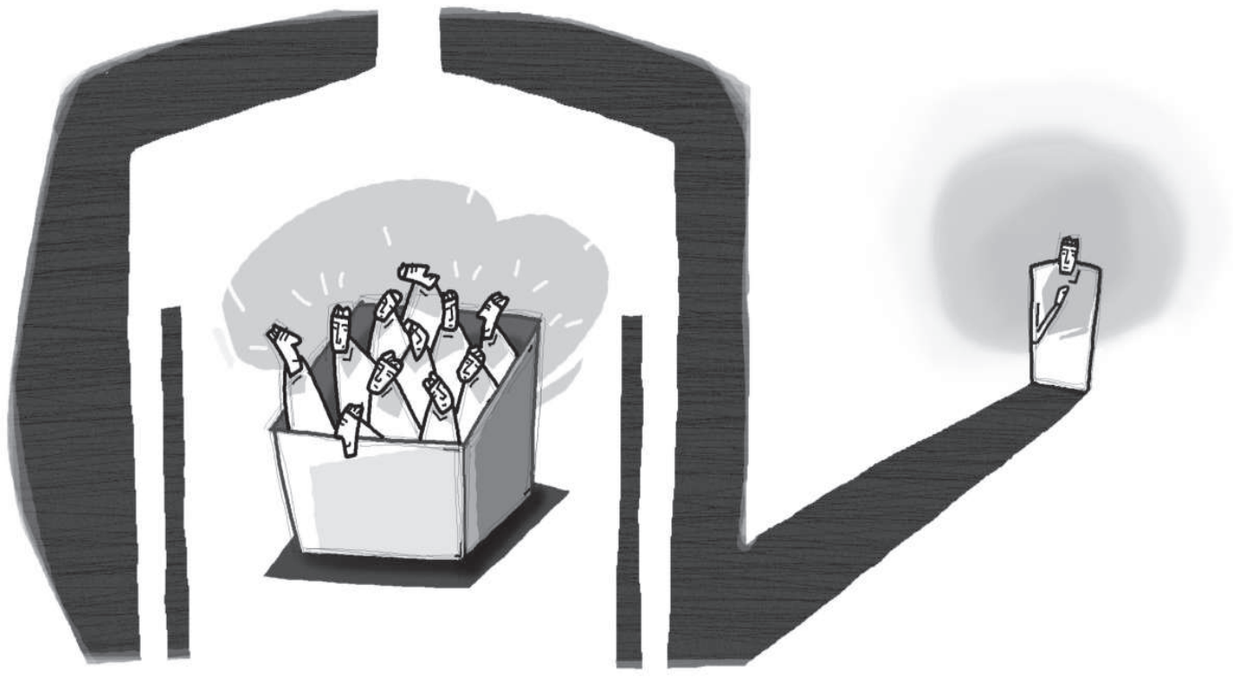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죽여도 살려도 자비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자비다

☞ 19면에서 계속

적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바뀌지고 먹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모두가 바뀌지니까, 어떤 거 먹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말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없거든요. 하도 찰나찰나 바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無)"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하는 뜻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아야 하고, 또 사생을 거치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된 이 자체가 인과 업으로서, 유전으로서 그 업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이 거기에 붙어 있고 내 생명을 아끼는 '나'라는 조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세계에 끄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몸뚱이 속에서 그렇게 독안에 들어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인과로서의 업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되놔야 없어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어떤 거든지, 내게 원수 갚으려고 나오든 또 좋은 인연을 맺어서 갚으려고 나오든, 악과 선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놓는다, 너희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에다 다 놓는다 이겁니다. 팔랑개비가 돌아가면서 색깔을 내는 그 자체는 그 대에 의존해서 나오는 거니까 대에다 놔라 이겁니다. 대. 막대기. 그것을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 그냥 되놔라 이겁니다. 이미 담겨 있는 카세트에다가 되넣으면 앞서 넣은 거는 없어지고 새로 넣는 것이 들어간다. 새로 또 넣는다면 앞서 넣은 거는 또 없어진다. 그러니 연방 그릇은 비면서 새 샘물이 나오는 거를 연방 떠먹어 가면서…, 그릇은 항상 비어 있으니 항상 새 물이 담기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잘하면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독사지옥이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잘 생각하셔서, 믿는 거는 대, 막대기를 믿고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것에 속지 말고 거기에다 다 놔라 이겁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나오는 대로 속으면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꿈을 잘못 꿨다고 속아서 '아이구, 내가 이거 꿈을 잘못 꾸었으니까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내가 편안하고 내 몸이 건강하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동서남북이 다 터졌으니, 누가 서쪽이 막혔으니 서쪽으로 이사 가지 말래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날 가는 게 법이에요.

여러분이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가졌다 하는 거는 그렇게 자유로운 무심, 중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고등 동물이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루하루 그저 모가지 쩍 잘려서 죽고 잡아먹히는 하천세계 짐승들과 다름이 없죠. 인간 수명이 70, 80, 90, 100, 보통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사생 가운데 하천세계에 사는 짐승들은 수명이 6개월도 되고 3개월도 되고 짧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인간 이 몸뚱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의 인과가 나한테 자꾸 말로도 나오고 생각으로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싸움도 붙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싱그럽게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한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녹이는 거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것이 속지 않는 것이며 보임을 하는 것이고, 보임을 잘하면 거기에서 부활이 돼서 하나가 툭 터져 나오면 그것이 바로 증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속에 들어 있는 마음 내기 이전은 나의 부(父)요, 마음 내는 것은 자(子)다 이럴 때, 자와 부가 따로 있느냐 이겁니다. 네? 그러면 자는 부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 또는 자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생각과 돌아가는 것을 부에게 다 놔라 이겁니다. 맡겨 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구성돼서 있던 하나하나의 인과라든가 유전이라든가 또는 원수, 업보 이런 것들이 다 보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마힐 거사가 그랬죠. "중생이 다 편안하게 나아야 나도 편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뚱이 속에 수십억 마리가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이니 위니 식도니 또는 콩팥이니 간장이니 다 소임을 맡아 가지고 공장장 노릇을 하죠? 공장장이 편안해야 직원들이 편안하고 직원들이 편안해야 부처가 편안하죠. 여러분 몸뚱이 속의 모든 중생들이 편안해야 여러분 몸뚱이가 편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 중생은 둘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여러분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이라고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부처는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겁니다. 부처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부처님이라면 때에 따라 삼십이응신으로서 나투시는데, 삼십이응신이라면 숫자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삼십 하면 여러분은 아주 달랑 숫자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세심을 상응하면서 혼연일체가 돼서 사생을 건지고 오온의 진리를, 모든 것을 파악하고 칠보를 가득 쥐고 여러분한테 달라는 대로 모든 걸 줄 수 있는 여건을 자유롭게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리만 아실 것 같으면 털구멍을 통해서 수호신이나 호법신이나 법신이나 화신이나, 또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용신, 지신 이런 헤아릴 수 없는 마음들이 모두 상응하면서 혼연일체가 돼서 천지인으로서 전부, 사생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내가 "알았소." 한다면 그 한마디 할 때 우주간 삼천대천세계 법계가 들썩 들려요. 다 알아요. 통신이 돼요. 그러니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몸과, 내 몸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다 질서 있게 이끌어 나가면서 한생각에 수십억 마리가 전부 한마음으로 따라 주는 그런 호법신이 되고 수호신이 되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예를 들어서 벌레 소굴에 들어갈 때는 벌레가 되니 부처는 벌레가 될 때도 있고 날아다니는 새가 될 때도 있고, 술 파는 작부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참,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게 될 수 있으니 어떤 거 될 때 부처라고 하겠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을 지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악과 선을 다 놔라." 하는 이치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좌선을 한다고 앉았는데 자꾸 잡념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관하는 게 똑바로 관하는 겁니까?" 이러거든요. 지금 이렇게 빠른 세상에 요것조것 생각하다 보면 뭐 좌선한 게 있겠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똥 누나 밥을 먹으나 좌선이지요. 그리고 또 배우는 사람들은 앉고 싶으면 저녁에 조용한 때 30분이라도, 시간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 30분이라도 앉았을 때, 모든 것을 둥글려서 다 하나로 만들어서, 둥글게 만들어서 무겁게 놓고 관해 봐라 이거예요. 잡념이 거기 어디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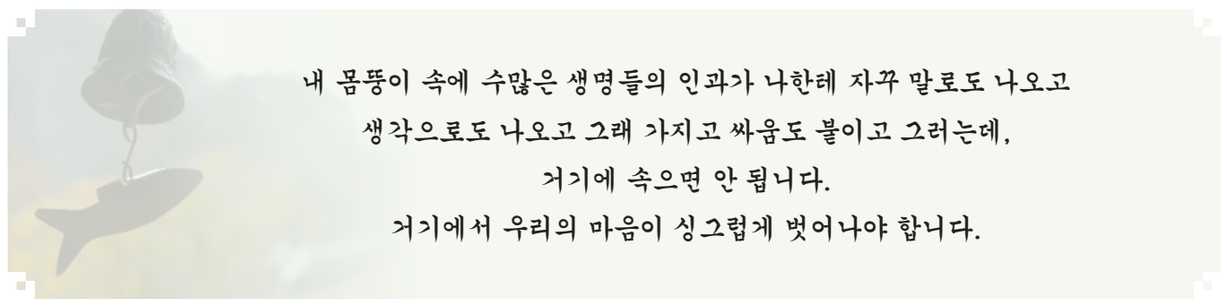
제사 지낼 때도 수없이 차려 놓고 해 봐도 그게 그거예요, 네? 조상들이 여러분처럼 또 나와서 고생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모찌떡처럼 크게 찹쌀떡 하나 해 놓고선 물 떠 놓고 향 피워 놓고 과일이나 서너 가지 한데 합쳐서 갖다 놓고 해도 삼천대천세계의 사생이 다 먹고도 그 떡은 되남아요. 어때요? 그 떡 하나 속에는 칠보가 가득하니까요. 여러분은 꼭 뭘 차려 놓고 '해 줍쇼' 하거든요. 스님들을 그렇게 성가시게 하고 귀신 만들면 여러분도 귀신 되고 같이 귀신 돼요. 사람이 귀신 노릇을 하니까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 노릇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있남? 마음은 그렇게 체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이 도리를 아실 것 같으면 털구멍을 통해서 보살들이 수없이…, 만 개로 쓰려면 만 개로 쓰고 천 개로 쓰려면 천 개로 쓰고, 이러기 때문에 내 몸뚱이에 있는 것만 수호신으로, 화신으로, 약사로, 보살로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쓰거나 뭘 위해서 쓰는데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저런 가랑잎 하나까지도 전부 수호신으로 쓸 수 있어요. 왜? 거기도 그렇게 있으니까요. 딴 사람한테도 그렇게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자기를 언제나 빼놓고 다녀요. 극장에 들어가면서 극장표 살 때 자기 표는 빼놓고 언제나 남의 표만 사 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왜 타의에서 구해요? 나로 인해서 태초도 있는 거고 나로 인해서 바로 문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나 없고 뭐가 있어요? 모두 부처님 법을 믿으러 다닌다면서 도깨비들이 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부모나 돌아가신 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로 생각을 해요. 이 바쁜 세상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빼고 뭐 남는 게 있다고 무슨 내 마음을 깨닫고 그러겠소?

모든 것은 일 초 일 초 부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일 초 일 초 보람 있는 살림살이를 하시고요. 부처님 법은 자비한 것만이 아닙니다. 칼을 쥐고 죽이러 온다 하더라도 가만히 죽어 주는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정의 정당한 게 부처님 법이에요. 에누리가 없어요. 그것이 자비거든요. 죽여도 자비요 살려도 자비요, 안 되는 것도 자비요 되는 것도 자비라. 왜? 안 되는 것도 일 초에 넘어가거든요. 되는 것도 일 초에 넘어가고요. 그러니 그걸 조절해서 용도에 따라서 내가 쓰려면 쓰지 어디 규정돼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도 없는데. 불 켜고 싶으면 내가 스위치를 눌러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쓰는 거죠.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10월 2일 국내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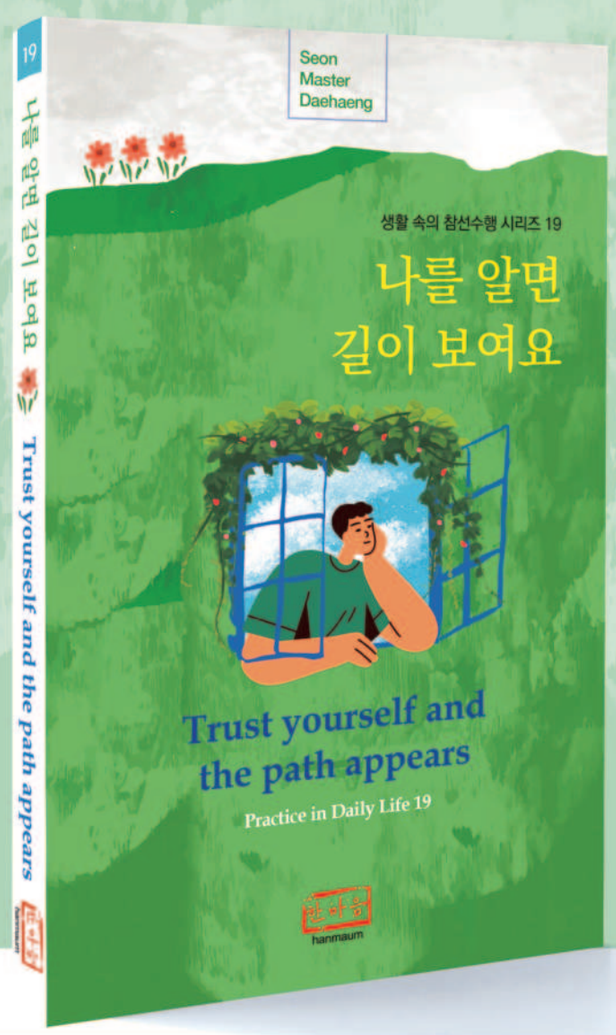


내 몸뚱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의 인과가 나한테 자꾸 말로도 나오고
생각으로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싸움도 붙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싱그럽게 벗어나야 합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⑱ 악보 밖에서 시작된 수업

아이들의 '바탕'을 읽는 시간

한 중학교에서 가야금 수업을 맡게 됐을 때, 주변 강사들에게 중학생 수업은 어떤지 물어본 적이 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중학생 수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이 학교에서는 정규 음악 수업 중 일부 시간을 가야금 수업으로 진행했는데,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서 따로 모인 학생들이 아니라, 관심도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다.

첫 수업 날 교실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다. 함께 있던 음악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니?"라고 할 정도였다. 가야금을 가르치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처음 만난 중학생들과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려웠다.

가까워지는 것과 가르치는 것 사이

다음 시간에는 작은 간식을 준비해 갔다. 굳어 있던 표정이 조금 풀렸고, 나눠 먹는 동안에는 말도 많아졌다. 그런데 몇 번 그러고 나니 걱정이 생겼다. 나는 가야금 선생님일까, 간식 주는 선생님일까. 간식으로 분위기는 풀렸지만, 그것이 가야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쉬는 시간이 되면 게임이나 아이돌, 친구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가야금 이야기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2학년 반은 남학생 여섯 명이었다. 연습하다 잠깐 쉬는 시간을 주면 자기들끼리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시작되면 길게 이어졌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한 명씩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봤지만 대답은 짧았다. 간식과 질문만으로는 금세 친해지거나 가야금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없었다.

쉬움의 기준이 달랐다

그러는 동안에도 발표회는 다가오고 있었다. 몇 차례 수업을 마치면 전교생 앞에서 연주해야 했기에, 한 곡을 정해 집중해서 연습하기로 했다. 처음 고른 곡은 동요였다. 음이 적고 가락도 단순해서, 처음 가야금을 잡는 학생들에게는 쉬운 곡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섯 명의 연주가 좀처럼 맞지 않았다. 알고 보니 아이들은 그 동요 자체를 잘 몰랐다. 내가 어릴 적부터 불러온 노래라 당연히 알 거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게 익숙한 노래가 아이들에게도 익숙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그 곡을 재미있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곡을 다시 골라 갔다. 이번에는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곡보다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고 흥미를 보이는 곡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정한 발표곡이 만화 주제가였다. 반주 음원을 틀어 놓고 주선율을 연주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엇박자가 나오는 곡이라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편곡한 악보도 함께 가져갔다. 뜻밖에도 아이들은 그 편곡을 더 어려워했다. 익숙하게 알고 있던 원곡과 달라진 부분에서 오히려 자주 헷갈려했다. 결국 원곡에 가까운 방식으로 연주하는 쪽을 택했다. 서툴기는 해도 훨씬 집중해서 따라왔다. 그 집중이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동요 때와는 분명히 다른 반응이었다. 내게 쉬운 곡은 음이 적은 곡이었고, 아이들에게 쉬운 곡은 이미 알고 있는 곡이었다.

내게 쉽던 동요도 아이들에겐 낯선 노래
당연한 쉬움 너머 상대의 눈높이 보는 일
듣는 이 근기 살핀 대기설법 지혜 느껴

잘하라는 말, 수고했다는 말

그렇게 마지막 수업 날이 왔다. 발표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했는데, 욕심내지 말자고 다짐했으면서도 막상 연주를 맞춰 보니 평소보다 수업을 서둘러 진행하게 됐다. 끝나갈 무렵에는 그게 마음에 걸렸다. 마지막 시간만큼은 "잘해야 한다"는 말보다 "수고했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서, 간식을 평소보다 넉넉히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막상 건네는 순간 마음먹었던 것과는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발표회 잘하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야 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절반쯤은 진심이었다.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보내주신 발표회 영상 속 여섯 명은 전교생 앞에 앉아, 조금 서툰 부분은 있어도 흐트러지지 않고 만화 주제가를 연주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잘해서 웃음이 났다. 음악 선생님은 "잘 해낼 줄 알았다"며, 아이들이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배우는 이의 자리에서

이 수업을 돌아보며 불교의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듣는 이의 근기(根機), 곧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과 바탕에 맞추어 설법의 방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불교의 설법과 교실의 가야금 수업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다만 이 말은 이번 수업을 다시 보게 했다.

내가 놓친 것이 그 '바탕'이었다. 동요를 고를 때도, 편곡을 할 때도 나는 곡을 단순하게 만드는 데만 마음을 썼다. 하지만 그 '쉬움'은 내 기준이었다. 내가 손본 곡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낯선 곡이 됐다. 이번 수업에서는 단순하지만 잘 모르는 동요보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노래를 아이들이 더 수월하게 따라왔다. 곡의 난이도는 악보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곡을 연주할 사람이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난이도의 일부였다. 가르치는 사람이 쉽게 만들어주는 것과 배우는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었다.

명상에서도 막연히 집중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실제로 마음이 머물 수 있는 대상에서 수행을 시작한다. 가야금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일이 먼저였다. 여섯 명은 내가 쉽게 고쳐 간 악보보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원곡을 택했다. 어느 쪽이 이 아이들에게 더 쉬웠는지는 그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드러났다.

가야금 명상곡 '이어지는 흐름'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건강 365

⑦1 당뇨병, '무조건 적게 먹기'보다 중요한 것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

당뇨병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먹고 싶은 걸 못 먹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식이요법은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굶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거르면 오히려 다음 식사 때 과식을 하게 되고, 혈당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약 중에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 계열의 약제나 인슐린을 투약 중이라면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밥, 떡, 빵, 면, 과일, 과자, 음료수, 구황작물)입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영양소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양을 조절하고, 종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고, 금방 배가 고파지면서 소화력이 좋다면 100% 현미밥도 좋습니다. 달콤한 음료나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와 같은 채소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겨보세요. 식습관을 이렇게 바꾸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먹는 형태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일도 주스나 즙으로 마시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 쉽고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착즙하지 않고 원물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망고, 곶감과 같이 말린 과일은 당이 농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사탕보다 더 혈당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구마, 옥수수, 감자 등을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음식 역시 탄수화물이므로 밥과 별개로 무제한 먹어도 되는 식품은 아닙니다.

탄수화물 양 조절, 흰밥 대신 잡곡밥
채소 · 단백질 먼저 먹고 밥은 그 뒤에
기름진 음식 대신 담백한 음식으로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고 이후에 밥이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며 포만감으로 인해 밥 먹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밥은 적당히, 채소는 충분히, 단백질(고기, 생선, 두부 등)은 적절히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 양념육도 주의해야 합니다. 치킨과 탕수육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튀김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치킨을 삼계탕으로, 탕수육이나 삼겹살구이를 수육으로, 양념갈비를 소금구이로 바꿔보세요. 생선, 두부, 콩, 견과류처럼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속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느끼기 전에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가능하면 한 끼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식습관을 천천히 바꾸는 것과 함께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가 나오는 복부비만은 혈당을 올리는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굶어서 살을 빼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식이요법은 '평생 해야 하는 벌칙'이 아닙니다.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한 끼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식습관이 더 좋은 식이요법입니다.

당뇨병 관리는 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오늘 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혈당을 바꾸고, 결국 미래의 우리 건강을 지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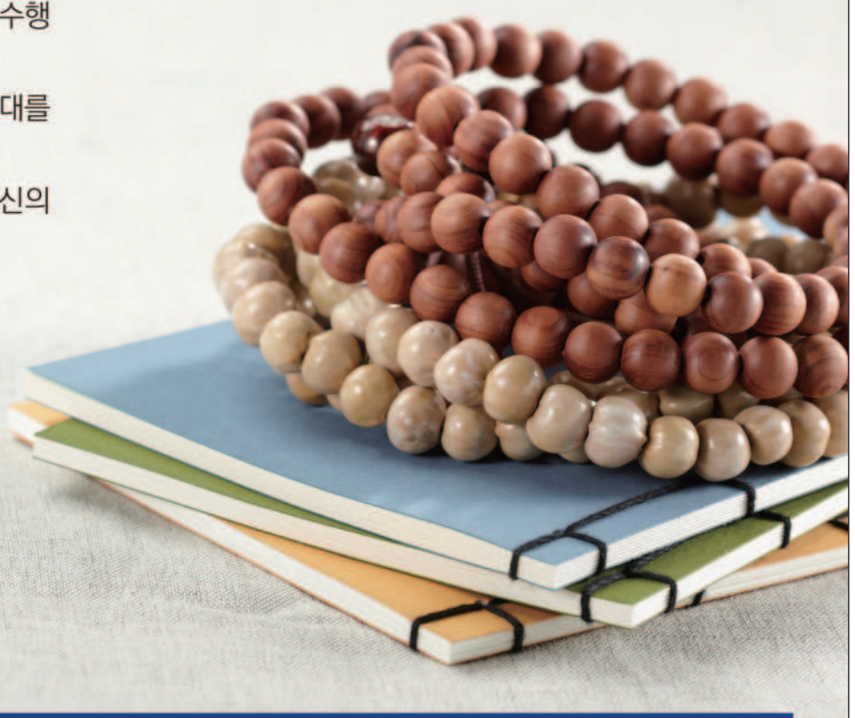
유승은
동국대일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⑱

꿈이 현실이 되는 길



캄보디아 최북단 뽀디봉 마을에서 꿈을 키워가는 '수레꾼 스쿨 타운'의 상상 조감도.

'촉발 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나 스토리텔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영어로는 '인사이팅 인시던트(Inciting Incident)'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으며 구름이 흐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인물들은 이전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야기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작은 불씨인 셈입니다.

지난 8월 말,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카카오톡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미국에 계신 한 거사님으로부터 온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무 농사를 지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한번 자리 잡으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장기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 권해드립니다. 나무 농사를 계획하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제안이었습니다. 공예학교를 세울 때부터 이곳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는 바람과 학교가 스스로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깨우쳐 줘야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뽀디봉 초등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수적인 중학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수레꾼이 만들고 있는 영화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면, 졸업생과 주민들이 기술을 배워 자립할 수 있도록 공예학교를 세운 일은 제2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제 조경수를 심고 길러 판매하는 나무 농사는 교육과 일자리, 학교의 재정 자립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11월부터 뽀디봉 학교의 유휴부지에 나무를 심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예학교에 기존의 봉제반과 목공예반에 이어 나무를 관리하고 꽃과 채소를 가꾸는 원예반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물, 집, 전기가 없는 황무지 땅에 초등학교를 세운 수레꾼들의 작은 불씨가 여기까지 번져왔습니다. 한 편의 영화라면 이제 이야기가 무르익어 클라이맥스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산속 절을 가다보면 계곡 주변에 쌓아놓은 작은 돌탑들을 만나곤 합니다. 누군가가 돌 하나를 주워 놓고, 다음 사람이 그 위에 또 하나를 올려놓은 돌탑들입니다. 어떤 돌은 올려놓다가 굴러떨어지고, 어떤 돌은 뜻밖의 자리에 놓여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수레꾼의 학교도 그렇게 세워지고 키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보태고, 그 누군가가 손길을 보탰습니다. 뜻대로 이뤄진 일도 있었고, 애써 쌓은 돌을 다시 올려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삶과 마음이 더해지면서 수레꾼의 이야기는 이제 긴 여정이 됐습니다. 한 편의 멋진 스펙타클 영화가 됐습니다.

물론 나무를 심는다고 곧바로 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뽀디봉의 땅과 기후에 맞는 나무를 골라야 하고, 지하수와 관수시설도 마련해야 하며, 묘목을 돌볼 수 있는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수레꾼이 하나씩 풀어가야 할 일들입니다. 방향은 멀리 보지만, 오늘은 내 앞의 돌 하나를 소중히 그리고 정성껏 쌓아갑니다. 돌 하나 올리고 욕심 하나 버리면서요.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⑨ 감사와 나눔의 추석 공양

정성 올리고 은혜 되새기는 한가위

사찰에서는 추석을 맞아 조상과 부모의 은혜를 되새기고, 먼저 떠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합동차례와 공양을 올린다. 가족과 법우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이다.

추석날 아침, 도량에는 정갈한 손길이 이어졌다. 정성껏 마련한 공양물을 불단에 올리고 차를 달여 부처님께 올렸다. 햇곡식과 제철 과일, 나물과 송편 등 가을의 결실을 담은 음식에는 자연이 베푼 은혜와 이를 가꾼 이들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이번 추석을 앞두고는 법우님들이 모여 송편을 빚으며 마음을 나눴다. 송편은 단호박, 쑥, 자색고구마, 비트, 당근으로 다섯 가지 빛깔을 내어 곱게 빚었다. 속에는 찧은 깨를 꿀에 버무려 넣어 은은한 단맛과 고소한 풍미를 더했다. 자연의 색감을 살린 송편은 한가위 공양상을 곱게 물들였다.

송편을 찔 때는 사찰 인근에서 채취한 솔잎을 찜솥 바닥에 가지런히 깔았다. 그 위에 정성껏 빚은 송편을 올리고 다시 솔잎을 덮어 쪄냈다. 찜솥의 뚜껑을 열자 송편에 스며든 은은한 솔향이 도량 가득 싱그럽게 퍼졌다. 산에서 얻은 솔잎과 법우님들의 정성이 어우러져 특별한 한가위 음식이 됐다.

갖가지 나물은 삶거나 데친 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무쳤다.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으로 만든 부각은 모나카 깍지에 하나씩 담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했다. 밥은 제철을 맞은 햇밤을 넣어 고슬고슬하게 지어 가을의 깊은 풍미를 더했고, 강화도에서 한 법우님이 농사지어 보내준 순무는 곱게 갈아 담백한 전으로 부쳐 공양상에 올렸다.

명절 음식은 함께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되기도 한다. 법우님들은 도량에 모여 재료를 다듬고 송편을 빚으며 안부를 묻고 서로의 마음을 살폈다. 누군가는 송편을 빚고, 누군가는 나물을 준비하며, 또 다른 이는 차를 달였다. 각자 마련한 음식을 부처님께 먼저 올린 뒤 모두가 함께 나눴다.

자연의 은혜에 정성 더해 올린 차례상

오색 송편에 햇밤밥, 나물·순무전 올려

감사 나누고 서로 아끼는 마음 깃들어

공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내가 먹는 한 숟가락의 음식이 상에 오르기까지 햇빛과 비, 흙과 바람이 있었고 수많은 손길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찰의 명절 음식에는 '많이 차리는 것'보다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추석에는 먼저 가신 분들을 향한 마음도 더욱 깊어진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차를 올리며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 온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되새긴다. 차 한 잔과 소박한 음식에도 그리움과 감사가 담긴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풍성한 결실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받은 은혜를 다시 이웃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한가위가 전하는 참뜻일 것이다. 추석날 사찰의 공양상에 오른 소박한 음식 한 접시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욕심을 덜고 자연의 맛을 살려 정성껏 나눈 음식 한 끼에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고운 마음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다.

보름달이 도량을 환하게 비추는 추석날, 법우님들과 함께 빚은 다섯 가지 빛깔의 송편에 은은한 솔향이 머물렀듯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인연의 향기가 오래 머물렀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다시 나누며, 사찰의 한가위는 조용히 저물었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㉟ 강남의 하늘빛

한남대교(1969년 12월 준공)가 놓이기 전 서울 강남 신사동의 땅값은 평당 200원 정도였다. 한남대교가 지어지기 전까지 서울의 남북을 잇는 다리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한강대교와 광진교가 전부였다. 남산1호터널에서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로 연결되는 이 다리는 결과적으로 강남 개발의 고속도로가 됐다.

1979년 가수 혜은이가 '제3한강교'(한남대교의 처음 이름)를 노래할 때만 해도 이 다리에는 낭만이 흘렀다. 1982년까지도 윤수일의 (강남) '아파트' 가는 길은 '갈대숲'을 지났다. 하지만 그 갈대숲이 '빌딩숲'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국전력 본사(1986년), 코엑스(1988년), 인터컨티넨탈 호텔(1988년)이 강남의 심장부를 이루었다. 요즘 이곳을 지나다 보면 빌딩의 벽면마다 동영상 광고가 쓰나미처럼 흘러넘친다. 자본주의를 장악한 디지털 점령군의 펄럭이는 깃발이다. 강남은 이제 빌딩의 벽면조차 그냥 비워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그룹에 10조5500억원에 팔려서 헐린, 옛 한전 본사 건물의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선큰(Sunken)의 벽면은 한국 도예의 새 길을 연 권순형(1929~2017) 선생의 '도자벽화' 작품 '동률, 역동'이었다. 벽화가 완성된 후 촬영 의뢰를 받아 사진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 멋진 벽이 사라질 때 나는, 물리적 통증을 동반한 상실감을 느꼈다.

강남 봉은사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대자대비'다. 이 절마저 없었다면 강남의 하늘빛은 얼마나 우울할 것인가.

손영자 작가


봉은사 대웅전.



결과를 붙잡지 않는 삶

현불논단



덕안 스님
전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얼마 전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불자가 아닌 의사 한 분과 긴 이야기를 나눴다. 집안은 기독교였지만 자신은 무교라고 했다. 그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불교가 떠오른다고 했다. 고정불변한 실체를 상정하기 어렵고, 존재를 관계와 변화 속에서 바라본다는 점이 닮아 보인다는 것이었다.

물론 양자역학과 불교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말을 듣고 나는 불교의 연기와 무아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을 비롯한 인류의 성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란 것은 자신이 속한 종교 집단의 확대나 유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르침의 출발점이었겠지요. 교단과 제도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자녀 교육으로 이어졌다. 어느 학부모가 아들이 이미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 서울대에 많이 진학했다는 이유로 다시 서울대 의대에 지원하려 한다며 합격을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의사 선생은 고개를 저었다. "굳이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서울대라는 이름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위해 쓰고 있는가. 어느 학교와 직장, 자리에 올라야 성공했다고 믿는

AI시대, 안정적 직업·명예 영원하지 않아
미래 결과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고
타인엔 정성을, 내 마음엔 주의 기울여야

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고 나면 잃을까 두렵다. 결과를 움켜쥐는 순간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 나는 다시 물었다. "AI시대가 오면 많은 직업이 달라질 텐데, 의사라는 직업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영역을 제외하면 의료의 상당 부분도 AI가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라 여기는 직업과 명예조차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하나로 모였다. 잘 산다는 것은 먼 미래의 결과를 붙들고 오늘을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는 일이라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까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도 그런 삶을 일러주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머무르지 않되 마음을 내라는 뜻이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상한 세상을 건너는 지혜일 것이다.

얼마 전 제38대 총무원장 소임을 다시 맡은 진우 스님은 국민의 마음 평안과 사회의 화합을 중요한 원력으로 내세웠다. 그 원력이 새 임기에는 더욱 넓고 깊게 실현되기를 바란다. 마음의 평안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며, 지금 일어나는 내 마음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다. 어쩌면 잘 산다는 것은, 결과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

혐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우리 사회에서 혐오 발언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물론 예전에도 타인에 대한 외모 평가나 간섭은 있었지만, 공개적 모욕은 드물었고 만약 그러더라도 사회적 비난과 자성의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비난은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없다는 점에서 비판과 다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비판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공격이 아닐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풍류(風流)를 기반으로 선불교와 성리학을 더하며 정립해 온 우리 한국 철학은 수행(修行)과 수양(修養)의 전통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면서 타자와의 관계를 예의와 정의(正義), 자비(慈悲)로 이끌고자 하는 삶의 지향을 간직해내고자 한 전통적인 인간상이 바로 선사와 선비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인간상들을 무조건적 극복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자신의 삶이나 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상을 공유하고 있을까? 헌법이나 교육 관련 법에서는 홍익인간 같은

혐오 발언·근거 없는 비난 분위기 확산돼
전통적·이상적 인간상 실종과 경쟁의 폐해
타인 존중 기반 '로크적 단서' 재조명 필요

이상적인 인간상이 분명히 제시돼 있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로 이어지는 교육의 장들에서도 제대로 살아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우리는 주로 '선다형 중심의 상대평가를 통해 높은 등수를 차지하는 사람'을 교육의 실질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결과 중 하나가 학교 교육에서 특별한 성취를 거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혐오 발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신이 스스로의 삶과 이 사회의 주인공임을 인식하는 것이 민주(民主)의 차원이고, 그 주인인 시민들이 함께 살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공화(共和)의 차원이다. 표현의 자유는 시민 각자가 자유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제약 없이 말할 수 있는 민주 차원의 자유다. 동시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시민에게도 똑같은 정도로 보장돼야 한다는 엄연한 공화적 제약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혐오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는 자유주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 있음을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로크적 단서(Lockean Proviso)'다. 우리는 주로 로버트 노직이라는 미국 정치철학자가 계승한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 즉 자연에 대한 내 소유권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약화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로크적 단서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동시에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단서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社 說

변화의 시대, 중앙종회의 길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18대 종회는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과 함께 종단 운영의 틀을 정비하고 사회 변화에 맞춰 종헌·종법을 손질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총무원 조직개편과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에 따른 종법 개정, 교구본사 기능 강화, 승려복지 제도 보완 등 종단의 변화에 입법으로 응답했다.

특히 비구니 승가의 참종권 확대에서도 한 걸음 진전했다. 비구니 종회의원이 처음으로 공식 선거를 통해 선출됐고,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했다. 오랜 시간 제기돼 온 비구니 승가의 제도적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물론 아쉬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앙종회가 대의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앙종회는 입법기구인 동시에 종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종단 변화 따른 제도 정비 성과 보여
대립 넘어 소통과 숙의의 길 열어야

후반기 종회에서 종책모임이 새롭게 출범하고 종회 지형이 재편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문제는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끌어 내느냐에 있다.

특히 임기 마지막 해 두 차례 임시회가 성원 미달로 열리지 못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집의 필요성과 안건의 시급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면 그 차이를 토론하고 설득했어야 한다.

종헌·종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 역시 숙제를 남겼다.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은 두 차례 표결에서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첫 표결에서는 의결정족수에 단 한 표가 부족했고, 두 번째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이는 종단 구성원들이 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종헌·종법의 정합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대종사·명사 법계의 자동 품수를 둘러싼 문제도 마찬가지다. 제18대 종회가 법계 품수 절차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종헌이 정한 원로회의의 심의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종헌과 종법 사이의 관계는 종단 질서의 근간이다. 아무리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상위 규범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면 다시 살펴야 한다. 제19대 종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중앙종회가 지향점은 '누가 옳으냐'보다 '어떻게 종단의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있다. 종헌·종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규정이 아니라 종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다. 따라서 중요한 제도일수록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특히 비구니 참종권과 법계 제도처럼 종단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은 표결의 승패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제19대 종회는 18대에서 마련한 제도적 변화의 틀을 실제 종단의 변화로 연결하고,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과 숙의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0월 14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0월 1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0월 1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장인의 손길, 복을 담는 그릇

100% 핸드메이드 연꽃 복전함



대형 (66cm×56cm×56cm) ⇒ **2,600,000원**

중형 (56cm×46cm×46cm) ⇒ **2,300,000원**

소형 (45cm 출시예정) ⇒ **1,900,000원**

청정한 연꽃의 기운과 복을 모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박지문(博地門)' 글씨 양각 새김



돈 꺼내는 도구

- **오동나무 원목** – 고급스러운 질감, 내구성 뛰어남
- **우레탄 금분 칠** – 오래도록 변색 없이 유지
- **복전함 & 박지문 양각** – 복을 모으고 지키는 의미의 상징
- **비밀 출금 구조** –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음, 구입자에게만 안내
- **전용 출금 도구 제공**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복 전 함
설치사례

부산 관음사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